우계(성혼) 스토리텔링(파주와 율곡학, 2022년)

강민우: 안녕하십니까? 강민우라고 합니다. 이이(율곡)선생에 대한 자료를 찾아가던 중 이이선생과 항상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니던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성혼(우계)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워낙 밀접하여 이이를 알려면 성혼을 알아야 하고 성혼을 알려면 이이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뜻밖에 성혼선생을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저로서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 드리고, 많은 배움을 얻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성혼: 저도 강민우님을 만나 21세기의 사회·경제·문화·인생 전반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무척 기쁩니다. 무엇이 궁금한지 부담 없이 말씀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혼의 탄생과 가족

강민우: 먼저 성혼선생의 개인적 약력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혼: 저는 1535년(중종 35년) 6월 25일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던 서울의 북부 순화방 자택에서 출생했습니다. 바로 청송당이 있던 그 집입니다. 현재 종로구 청운동 청운중학교 부근에 있습니다. 이곳은 백악산 기슭으로 경치가 좋아 조선 후기 진경산수의 대가인 정선(鄭敾)이 그린 그림도 남아있습니다. 어머니는 파평 윤씨 윤사원(尹士元)의 딸입니다. 윤사원은 성종의 계비인 정현왕후(貞顯王后) 윤씨의 조카이므로 왕실의 외척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성수침은 비교적 고령인 43세에 아들을 얻습니다. 슬하에 딸이 한 명 더 있으나 아들은 저뿐입니다.

강민우: 43세에 외아들을 얻으셨으니 부모님께서 정말 기뻐하셨겠습니다.

성혼: 아마 그러했을 겁니다. 저는 10세가 될 때까지 이곳에서 살면서 아버지 성수침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10세 되던 해에 성수침이 처가가 있는 파주로 이사하면서 저도 아버지를 따라 파주로 가서 농촌 소년이 되었습니다.

강민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15세에는 이미 경학과 역사학에 통달했고, 행실이 바른 소년으로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다고 하더라구요. 당시 정승으로 있던 상진(尙震)이 성수침에게 편지를 보내 “자제가 순수하고 바르며 문장을 잘하니 참으로 기남자(奇男子: 재주가 남달리 뛰어난 사내아이)이다. 그대에게 복이 있음을 축하한다”라고 했다지요.

성혼: 과찬이십니다. 저는 17세가 되던 1551년(명종 6년) 7월에 당시 순천 군수로 있던 신여량(申汝樑)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부인 신씨는 저보다 네 살 연상입니다. 이이가 22세에 혼인한 것과 비교하면 빠른 편인데, 외아들이므로 후사를 빨리 갖고 싶어했던 부모님의 소망 때문입니다.

강민우: 과거 응시를 단념한 성혼선생은 이해 겨울에 아버지의 권유로 백인걸(白仁傑)을 찾아가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다지요.

성혼: 백인걸은 사림을 탄압하던 소윤파 윤형원의 미움을 받아 안변(安邊)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서 고향인 파주의 촌장(村庄: 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으로 돌아옵니다. 조광조 문인의 한 사람이었으므로 아버지 성수침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이도 이곳에서 만납니다. 이이가 19세에 금강산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다가, 1년 뒤에 환속하여 백인걸 문하에서 성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백인걸 문하의 동문으로는 김행(金行)이 있는데, 저는 그와도 평생 친구로 가까이 지냈습니다. 김행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제문(祭文)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강민우: 제문이란 죽은 이를 추모하는 글이지요?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을 글로 표현한 것이군요.

성혼: 그렇습니다. 스승 백인걸선생이 파주에 머문 약 20년 동안 그의 문하에서 이이 등 많은 학자들을 배출합니다. 백인걸이 파주 지역을 성리학의 요람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혼인한지 2년이 지난 19세에 첫 아들 문영을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열아홉의 어린 나이에 일찍 죽습니다. 25세에 낳은 둘째 아들 문준이 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 가통을 이어 갔으며, 진사를 거쳐 벼슬길에 올라 인조 때는 현감을 지냅니다.

강민우: 아버지 성혼의 영향을 받아 학문이 높고 글씨를 잘 썼다고 전해지더라구요.

성혼: 제가 보기에는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21세 무렵에 큰 병을 앓고 나서 비위가 허약해져 고질병이 생겼습니다. 늘 음식을 잘 먹지 못하여 몸이 말라 뼈만 남고 현기증이 심하며 피를 토하기도 했습니다. 겨울에는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 있었으며, 벼슬을 사양할 때도 항상 임금에게 고질병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민우: 현대 의학으로 무슨 병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위장을 비롯한 소화기 계통의 병으로 보입니다.

성혼: 병이 생긴 이유에 대해 집안사람들은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느라 어린 나이에 너무 몸을 혹사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성수침은 집안이 가난한데도 마치 손님처럼 집안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안일을 전담하여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아서 그 음식으로 부모님을 봉양했습니다. 제가 64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높은 벼슬을 거부한 것은 아버지처럼 자신을 연마하여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 일생을 마치겠다는 신념 때문이기도 했지만, 벼슬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허약한 건강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강민우: '위기지학'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학문을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성혼: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공자가 "옛날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을 하였는데, 오늘날은 남을 위한 학문을 한다(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라고 한데서 유래합니다. '위기지학'은 자신의 도덕적 완성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라는 의미로서, 입신양명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출세지향의 위인지학(爲人之學)과 상대되는 말입니다.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 정자는 "위기지학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이루어주는데 비해, 위인지학은 남에게 인정받는 학문을 하여 끝내는 자신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여 위인지학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강민우: 이후 조선에서 선비를 평가할 때는 위기지학을 했는지가 그 기준이 되죠. 성혼·정엽(鄭曄)·윤증(尹拯)·박세채(朴世采)·한원진(韓元震) 등이 모두 위기지학에 힘쓴 대표적인 인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거론됩니다.

위기지학의 처사, 아버지 성수침

강민우: 성혼의 아버지 성수침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성혼: 아버지 성수침(成守琛, 1493~1564)은 대사헌을 지낸 성세순(成世純)의 아들로, 동생 성수종(成守琮)과 함께 조광조에게 학문을 배웁니다. 1519년(중종 14)에 현량과(賢良科)에 천거되나, 기묘사화의 발발로 스승인 조광조와 그 문하들이 처형 또는 유배당하는 것을 보고 벼슬을 단념합니다. 관직에 오르는 것을 포기한 성수침은 '청송'이라는 편액을 걸고 경서 공부와 후학 양성에만 전념합니다. 1541년 처가가 있는 경기도 파주 우계(牛溪)에서 모친을 봉양하며 재야 처사로 일생을 마칩니다. 그럼에도 『명종실록』에는 그에 대한 길고도 아름다운 찬사의 졸기(卒記)가 실려 있습니다. 원래 '졸기'는 당상관 이상의 고관이 죽었을 때 실어 주는 것이 관례임에도 벼슬이 없는 처사의 졸기를 넣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강민우: 그만큼 아버지 성수침이 선비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았다는 뜻이아닐까요?

성혼: 졸기에는 아버지의 생애와 언행이 매우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수침은 아름다운 자질을 갖고 태어나 어릴 때부터 마치 어른처럼 의젓했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사람들이 효아(孝兒)라고 불렀다. 22세 때 아버지 성세순이 세상을 떠나자 동생 성수종과 함께 지극히 슬퍼하였고, 죽을 마시면서 삼년상을 치렀다. 어떤 나그네가 무덤 옆의 여막(廬幕)을 지나다가 두 아들의 효성에 감동하여 시를 지어 던져주고 갔다고 합니다."

강민우: 여막은 무덤 옆에 지은 집인 듯한데, ~~무던~~무덤 옆에다 왜 집을 지었나요~~.~~?

성혼: 여막은 부모상을 당하여 상주가 무덤을 지키기 위하여 그 옆에 지어놓은 임시 거처를 말합니다. 두 형제가 모두 조광조 문하에서 공부하여 명성이 대단했는데, 동생 성수종은 영특했으나 악한 것을 지나치게 미워한데 반해, 성수침은 독실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성수침은 27세 되던 해(1519년)에 기묘사화로 수많은 선비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벼슬길을 포기합니다. 경복궁 뒤 백악산(白岳

山) 아래에 집을 짓고 청송당(聽松堂)이라는 현판을 답니다. 솔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살겠다는 의지의 표시입니다.

강민우: 지금은 그 집이 청운중학교 경내로 들어가 없어지고, 청송당이라는 글자를 새긴 바위만이 학교 뒤편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서울 종로구 창성도 158번지에 해당하며,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북부 순화방(順化坊) 지역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성혼: 아버지는 청송당에 홀로 앉아 날마다 성인의 가르침을 외우고, 태극도(太極圖)에서부터 정자와 주자의 책에 이르기까지 직접 손으로 베껴가면서 성리학을 탐구합니다. 태극은 성리학에서 모든 존재와 가치의 근원이 되는 궁극적 실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주역』「계사전」의 "역에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兩儀)를 낳는다"고 한데서 유래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선진유학의 천(天) 개념과 연관성을 가집니다. 송나라의 주돈이는 『태극도설(太極圖說)』을 지어 『주역』에 나타난 태극의 의미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무극(無極)과 동정(動靜)의 개념을 추가하여 "무극이면서 태극이다. 태극이 동하면 양이 되고, 정하면 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행을 추가하여 태극→음양→오행→만물의 우주생성론을 성립시킵니다. 주자(주희)는 다시 이 태극을 리(理)로 규정하여 형체도 없고 작용도 없는 형이상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물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원적 존재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리는 모든 사물의 존재 이유 또는 까닭으로서 개개의 사물 속에 내재하게 됩니다.

강민우: 성수침은 52세 되던 해 9월에 어머니 김씨를 모시고 파평산(坡平山) 아래 우계 부근에 별장을 정하여 귀향했으며, 이때 성혼선생은 열 살이었습니다. 우계는 '쇠노'로 불리는 작은 하천으로서, 지금은 파주시 파평면 눌노리에 해당합니다. 이곳을 별장으로 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성혼: 아마도 조상의 무덤이 있는 파주 향양리에서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인 파평 윤씨의 처가가 있는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버지는 키가 훤칠하고 풍채가 좋은 호남입니다. 몸에서 풍기는 품격이 높아서 누가 보아도 덕성을 갖춘 군자로 보입니다. 특별히 즐기는 오락 없이 오직 마음 다스리는 공부에만 몰두하여 산중생활을 표현한 시를 잘 짓고, 특히 중국의 동진시대를 살았던 도연명(陶淵明)의 시를 좋아했습니다. 술을 즐기지는 않았으나, 약간 취하면 맑은 목소리로 시를 읊어 집안에 화기가 가득 했습니다.

강민우: 비단옷 같은 것은 몸에 걸치지도 않았으며, 보통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생활고도 오히려 즐거움으로 삼았다~~지요~~. 고 하더라구요.

성혼: 친척 가운데 곤궁한 사람이 있으면 재산을 기울여 도와주면서 조금도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남의 착한 일을 보면 언제나 사모하면서 잊지 않았으며, 남의 잘못을 보면 곧바로 배척하지 않고 은미한 뜻을 보여 스스로 깨닫게 했습니다. 이렇게 언행이 모나지 않았지만, 의리의 시비를 판단할 때에는 명확하고 엄격했습니다.

강민우: 일찍이 학자들이 '도'라는 뜻을 어려워하자, 다음과 같이 훈계했다지요. "도라는 것은 큰 길과 같다고 성현이 말씀하셨는데, 어찌 알기가 어렵다고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힘써 배운 지식을 실행하는 것이다. 말로는 학문을 이룰 수 없다. 공자 문하에 총명하고 영특한 사람이 많았지만, 끝내 도를 전한 사람은 어리석고 둔한 증자뿐이다"라고 하면서, 항상 자신을 닦는데 뜻을 두는 『소학』을 사람들에게 권했다고 합니다. 『소학』은 어떤 책인가요?

성혼: 『소학』은 송나라의 유자징(劉子澄)이 8세 안팎의 아동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편찬한 책입니다. 주자가 엮은 것이라고 씌어 있으나, 실은 그의 제자 유자징이 주자의 지시에 따라 편찬한 것입니다. 내용에는 일상생활의 예의범절, 수양을 위한 격언, 충신·효자의 사적 등이 모아져 있습니다. 주자는 "『소학』은 집을 지을 때 터를 닦고 재목을 준비하는 것이며, 『대학』은 그 터에 재목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라고 비유하여, 『소학』이 인간교육의 바탕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들어와 사대부 집안의 자제들은 8세가 되면 초보교육으로 이를 배웁니다.

강민우: 『소학』은 유교사회의 도덕규범 중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가려 뽑은 것으로서, 오늘날 초등교육 정도가 되겠군요.

성혼: 아버지는 항상 책이 가득 찬 방에 혼자 거처하며 오로지 자신을 닦는 수신에만 몰두하고 세상일에는 무관심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정치적 현안에 격분하고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경륜할 만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재주를 펼 수 있는 시대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점에서 아버지는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사는 은둔자와는 다릅니다.

강민우: 성수침의 외아들인 성혼선생은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가훈을 배우고 교육을 받다가, 17세 되던 해에는 파주에 내려와서 당시 파주에서 후학을 가르치던 백인걸에게 성리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성혼의 학문은 아버지와 백인걸 두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다죠.

성혼: 벼슬이 없는 성수침의 삶은 곤궁하여 종종 식량이 떨어질 정도로 가난했으나, 어머니만은 정성으로 봉양했습니다. 파주에 온 뒤로 아버지는 자신의 호를 파산청은(坡山淸隱)이라 했다가 뒤에는 우계한민(牛溪閑民)이라고 바꿉니다. '청은'은 깨끗한 은자를 뜻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부끄럽게 여겨 '한민', 즉 한가한 백성이라고 고칩니다. 그밖에 서재 이름을 죽우당(竹雨堂)이라 하고, 이를 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수침을 주로 '청송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강민우: 만년에 성수침은 몇 년 동안 중풍을 앓다가 72세 되던 해(1564년, 명종 19년) 1월에 세상을 마칩니다. 30세의 아들 성혼이 넓적다리를 베어 낸 피를 약에 섞어서 올리는 등 지극정성을 다했으나 효험이 없었나 봐요.

성혼: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어서 국가에서 관·곡식·인력·장례 도구들을 보내 도와주었습니다. 묘소는 성수침의 아버지 성세순이 안장된 파주 향양리에 모셨습니다. 훗날 국가로부터 문정(文貞)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묻기를 좋아하

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청백(淸白: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곧고 깨끗함)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정(貞)'이라 합니다. 1568년(선조 원년)에는 백인걸과 이이, 그리고 파주 일대 유생들이 발의하여 파산서원을 건립하고, 성수침의 위패를 모셔 제사를 지냈습니다.

강민우: 이 서원은 1628년(인조 6년)에 성혼의 위패를 추가하고, 1650년(효종 원년)에는 임금의 액자(額字: 현판에 쓴 큰 글자)를 받아 사액서원이 됩니다. 그 뒤로 1705년(숙종 31년)에는 백인걸의 위패를 추가했고, 1785년(정조 9년)에는 기묘명현으로 추앙받은 성혼의 동생 성수종의 위패를 또 추가 했답니다. 이 서원은 1871년(고종 8년)에 대원군이 전국의 사액서원을 철폐할 때에도 살아남은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가 되었죠.

이이를 알아야 성혼을 알고 성혼을 알아야 이이를 안다

강민우: 성혼선생은 어떤 인물입니까? 절친한 친구로 잘 알려진 이이와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성혼: 저를 이해하는 지름길은 이이(李珥, 1536~1584)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이의 호가 율곡(栗谷)이므로 주로 율곡이라 부릅니다. 관직은 이조판서에 이르렀으며, 후에 서인의 영수로 추대됩니다. 시호는 문성(文成)입니다. 아홉 차례의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이와 저는 같은 고장인 파주에 살면서 30년간 가장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공자를 제사지내는 성균관 문묘에 동시에 배향되어 선비들의 사표가 됩니다.

강민우: 문묘에 배향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혼: 문묘(文廟)는 공자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드리는 사당을 뜻합니다. 위패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 그의 혼을 대신한다는 상징성을 갖는 나무 조각으로, 목주(木柱)·영위(靈位)·위판(位版)·신주(神主)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위패는 종이로 만드는 신주인 지방(紙榜)과 달리 나무로 만드는데, 주로 단단한 밤나무로 만듭니다.

강민우: 문묘에는 주로 어떤 인물들이 배향되어 있나요?

성혼: 우리나라 선비로서 성균관과 향교의 문묘에 배향되어 만세토록 선비들의 추앙을 받은 인물은 모두 열여덟 명입니다. 이들을 동국18명현(東國十八名賢)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두 명은 신라 때의 인물로 설총(薛聰)과 최치원(崔致遠)이고, 두 명은 고려 때의 인물로 안향(安珦)과 정몽주(鄭夢周)이며, 나머지 열네 명은 조선시대 인물입니다.

강민우: 문묘가 공자를 비롯한 중국 역대 성현과 우리나라 역대 명현들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국가에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면, 문묘에 배향되는 것은 선비들의 더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성혼: 본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국가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문묘에 배향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만인의 사표가 될 만한 행실이 있어야 하고, 전국적인 선비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선비들이 상소를 올려 문묘 배향을 요청하더라도 임금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전국적인 여론의 지지가 있을 때까지 결정을 유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묘 배향의 결정은 짧아도 몇 년, 길면 몇 십 년을 끌다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론의 지탄을 받아 중도에 낙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강민우: 특히 당쟁이 일어난 조선 후기에는 문묘 배향이 더욱 어려웠겠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행실과 업적이 있더라도 당색(黨色)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반대ˇ당에서 극력(極力:있는 힘을 아까지 않고 다함)하게 반대했을테니까, 더욱 힘들었을꺼 같아요.

성혼: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열 네 명의 문묘 배향자 가운데 당쟁이 없던 조선 초기의 인물로는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김인후(金麟厚) 등인데, 이들 여섯 명은 비교적 순탄하게 문묘 배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당쟁이 일어난 이후의 인물인 이이·성혼·조헌(趙憲)·김장생(金長生)·김집(金集)·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박세채(朴世采) 등은 우여곡절 끝에 문묘 배향이 결정됩니다. 이들 여덟 명 가운데 이이·조헌·성혼은 모두 서인에 속했으나, 훗날 이이·조헌은 노론의 추앙을 더 받았고 성혼은 소론의 추앙을 더 받았습니다.

강민우: 나머지 다섯 명 가운데에 박세채만 소론에 속하고, 네 명은 모두 노론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반대당인 남인 측에서 문묘 종사에 적극 반대했던 것이겠군요. 조선 후기 남인 인물 가운데 문묘 배향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의아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혼: 숙종 때에 남인이 잠시 권력을 잡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정권을 주도하지 못한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남인 중에도 유형원(柳馨遠)·이익(李瀷)·이가한(李家煥)·이중환(李重煥)·채제공(蔡濟恭)·정약용(丁若鏞)과 같은 뛰어난 유학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당시의 주류 이념이던 주자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개혁적인 실학을 발전시킵니다. 게다가 천주교에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도 적지 않아 학술계의 주류에서 밀려납니다. 이들은 현대에 와서는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전국적인 선비들의 추앙을 받는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강민우: 조선 후기에 선정된 문묘 배향자는 당색이 짙어 주로 집권당 쪽에서 배출되고, 반대당에서 호된 비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혼: 그 때문에 문묘 배향에 대한 권위가 많이 실추된 것도 사실이지만, 권력이라는 것도 결국 절대 다수의 지지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문묘 배향 과정이 권력의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재야 선비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정되기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했으므로 학문적인 권위나 추종자 없이는 문묘에 배향될 수 없습니다.

강민우: 서인이나 노론에서 가장 많은 문묘 배향자를 배출했다는 것은 그들의 학문이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하겠군요.

성혼: 좋고 나쁨을 떠나 조선 후기의 정치사와 학문사는 이들이 주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강민우: 오늘날 우리나라 화폐에는 문묘 배향자 가운데 두 사람의 초상화가 들어있습니다. 이황과 이이입니다.

성혼: 이들은 모두 주자학자이고 당파에 따라 평가가 엇갈립니다만, 워낙 행실과 업적이 뛰어났기 때문에 문묘에 올랐고,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조선시대 당쟁의 와중에 비판과 반대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영향 아래서 문묘 배향자를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이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가 여부이지 모든 당파의 추앙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민우: 문묘 배향의 문제는 이정도로하시고 다시 성혼과 이이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혼과 이이 두 사람은 비슷한 점도 많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후세 사람들이 이들을 우율(牛栗)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후학들을 '우율학파'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 실과 바늘처럼 가까우며, 동시에 쌍벽을 이루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성혼: 저희 두 사람은 성리학의 가르침에 따라 요순시대의 이상사회를 이 땅에 건설하여 백성들이 편안하고 도덕이 꽃피는 나라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중국 문화권에서는 훌륭한 군주를 가리켜서 '요순과 같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라의 우왕, 은나라의 탕왕을 합쳐 요(堯)·순(舜)·우(禹)·탕(湯)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요순시대는 주로 뛰어난 군주의 치세를 일컬으며 태평성대와 같은 의미입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좋은 옛 시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강민우: 특히 이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자신이 처했던 시대를 무너지는 가옥과 병든 사람에 비유하여 시급한 경장(更張:정치적,사회적으로 묵은 제도를 개혁하여 새롭게 함))의 필요성을 선조 임금에게 역설합니다. 그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벼슬을 내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는데, 바로 그 점이 권세에 연연하던 보통 선비들과 다른 점입니다.

성혼: '경장'은 정치·사회의 폐단이 누적되었을 때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일신해야 한다는 개혁안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조선유학사에서 이 경장론을 주장한 사람으로는 조광조와 이이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이의 역사관에 의하면, 역사의 모든 시기는 창업(創業)·수성(守成)·경장(更張)의 3기로 구분됩니다. 역사의 전개에서 일단 창업이 이루어지면, 그 혁명의 이념과 정신을 잘 보존하고 전수하는 수성의 시기가 오게 되고, 수성의 시기가 오래 지속하다 보면, 정신과 문물제도가 병들게 되는 시기가 필연적으로 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에 개혁과 같은 경장을 해야 하는데, 경장할 때가 되어서 경장을 하지 못하면 나라에 큰 병폐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관에서 이이는 당시를 경장의 시대로 규정하고, 사회와 정치의 묵은 폐단을 지양하고 새로운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강민우: 이이는 20대에 과거에 급제하므로 성혼선생보다 먼저 벼슬에 오릅니다. 이후 엘리트 코스에 해당하는 사헌부·사간원·홍문관 등 요직을 거치면서 『동호문답(東湖問答)』·「만언봉사(萬言封事)」·『성학집요(聖學輯要)』 등을 지어 선조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경연에서 임금을 만날 때마다 성인을 본받아 시급히 경장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압박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성혼: 그 결과가 임진왜란의 참변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수많은 경장 가운데 이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어진 자를 등용하여 정치를 맡기라는 것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 공납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강민우: 공납(貢納)은 조선시대 세제의 하나입니다. 각 지역의 토산물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토공(土貢)이라고도 하며, 이는 정부의 여러 가지 용도에 충당키 위한 것입니다. 공물에는 수공업품으로서 직물·종이·돗자리 등과 각종의 광물·수산물·모피·과실·목재 등이 있습니다.

성혼: 이이는 경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임시기구로 경제사(經濟司)의 설치를 건의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혁폐도감(革弊都監)의 의미가 포함된 '경제사'에서 바로 개혁을 추진하고 경제를 일으키는 역할을 맡기자는 내용입니다.

강민우: 이이와 달리, 처음부터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던 성혼선생은 과거시험도 외면하고 오직 학문과 교육 사업에만 전념했 답니다.

성혼: 34세부터 학생(學行)으로 천거되어 여러 번 벼슬이 내려졌으나 받지 않다가, 47세(1581) 되던 해에 종묘서령(宗廟署令: 종5품)과 내섬시 첨정(僉正: 종4품)에 천거되었을 때 처음으로 선조임금을 만났습니다. 저는 임금에게 경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실행하는 임시기구로 혁폐도감의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선조 임금은 저의 말을 듣고 이이와 생각이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저는 임금에게 이이와 친구이므로 생각이 비슷한 것은 당연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렇듯 저희 두 사람은 경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하면서 운명 공동체를 이루지만, 이이가 먼저 세상을 뜬 뒤에는 서인 세력이 약화되고 동인세력이 커지면서 이들의 공격이 저에게 집중되어 큰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강민우: 혁폐도감과 경제사라는 개혁기구의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으니, 두 사람이 평소 이러한 개혁기구의 설치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혼: 사실은 제가 임금을 만나기 전에 임금에게 무엇을 말할지 이이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줄 만큼 서로 통하는 사이였고, 이이는 저의 천거를 배후에서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강민우: 성혼선생도 이이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성혼: 1583년(선조 16년)에 이이가 병조판서로 있을 때였습니다. 니탕개(泥湯介)가 이끄는 2만 명의 여진족이 함경도에 침입하자, 이를 막아내기 위해 임금의 허락도 받지 않고 군마(軍馬)를 바치는 군인에게 전장에 나가는 것을 면제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반대당인 동인들이 들고 일어나 이이에게 무군오국(無君誤國), 즉 '임금을 무시하고 나라를 그르쳤다'는 죄명을 씌워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이이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시 선조는 이이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이의 실수를 임금은 탓하지 않았으나 동인들이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 일로 이이는 끝내 벼슬을 버리고 해주로 낙향했다가, 병이 들어 다음 해 1월에 4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민우: 이때 이이의 행동을 변명하는 장문의 상소를 올려 위기에서 그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성혼선생이었죠. 동인의 주장이 허황되고 거짓이라고 말입니다. 이때부터 성혼선생은 동인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동인들은 성혼과 이이를 같은 무리로 묶어서 공격했다지요.

성혼: 일부 동인의 줄기찬 모함과 비난에도 선조 임금은 저와 이이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는 성혼과 이이의 당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두 사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조 임금은 벼슬을 버리려는 이이를 극구 만류하고, 벼슬을 사양하는 저를 갖은 정성을 들여 불러들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저를 뒤에서 후원하던 이이와 영의정 박순(朴淳) 등이 세상을 떠난 뒤로 서인세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동인세력이 삼사(三司: 사헌부·사간원·홍문관)를 장악합니다.

강민우: 성혼선생은 갈수록 외톨이가 되었고, 동인의 공격은 살아있는 성혼과 죽은 이이에게 집중되었던 것이군요.

성혼: 임진왜란 초기에는 세자 광해군과 선조 임금의 부름을 받아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호종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평안도·황해도·강원도 등지를 전전하면서 추위와 배고픔, 병마의 고통 속에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명나라와 일본이 강화를 하여 휴전한 뒤에야 고향 파주로 돌아왔으나, 집은 모두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어 부근 절에서 밥을 얻어먹을 어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크게 괴롭힌 것은 육체적 고통보다도 일부 동인들로부터 받은 비판과 모함입니다. 일부 동인들은 제가 서인들과 작당하여 권력을 농단한다고 공격했습니다. 벼슬도 없이 시골에 파묻혀 있는 저에게 권력을 농단한다고 공격한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었습니다.

강민우: 성혼선생이 받은 비판과 모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더라구요.

성혼: 하나는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이 터졌을 때의 일입니다. 최영경(崔永慶)이라는 경상도 처사가 감옥에 있다가 병사했는데, 이 사건을 처리한 중심인물이 바로 저의 절친한 친구인 정철(鄭澈)입니다. 일부 동인들은 제가 정철에게 구명운동을 하지 않아 최영경이 죽었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철에게 편지를 보내 구원을 요청했고, 아들을 보내 최영경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실권이 없었는데도 동인들은 제가 최영경을 죽였다고 두고두고 공격했습니다.

강민우: 정여립의 모반사건은 기축옥사로 불립니다. 기축옥사(己丑獄事)는 1589년 10월의 정여립이 모반을 꾸민다는 고발로부터 시작되어 정여립과 함께 3년 여간 그와 연루된 많은 동인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정여립의 옥사'로도 부릅니다. 정여립은 본래 서인 세력이었으나 당시 집권 세력이던 동인 편에 들어가 이이를 배반하고 성혼·박순을 비판합니다. 선조가 이를 불쾌히 여기자, 정여립은 벼슬을 버리고 낙향해버립니다. 낙향한 뒤에, 정여립은 호남 지역에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하여 무술 연마를 하며 1587년에는 왜구를 소탕하기도 합니다. 대동계의 조직은 더욱 확대되어 황해도까지 진출합니다. 그러자 이들의 활동이 주목을 받게 되고, 마침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당시 황해도 관찰사의 고발이 임금에게 전해집니다. 고발의 내용은 정여립의 대동계 인물들이 한강의 결빙기를 이용해 황해도와 전라도에서 동시에 봉기하여 대장 신립과 병조판서를 살해하고 병권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여립은 아들과 함께 죽도로 피신하지만 관군의 포위망이 좁혀지자 자살합니다. 이 사건으로 동인들이 서인들, 특히 정철과 그 배후의 성혼·송익필에 원한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성혼: 저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든 사건은 임진왜란 중에 일어납니다. 선조 임금이 밤중에 몰래 궁궐을 떠나 임진강을 건너 개성으로 피난할 때 임진 나루터에 이르러 "성혼의 집이 어디 있느냐"라고 호종하던 신하 이홍로(李弘老)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는 바로 옆에 있는 동네를 가리키며 "저 곳에 산다"고 했습니다.

강민우: 당시 선조 임금은 근처에 있으면서 나와서 배알(拜謁:지위가 높고나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가 뵘)하지 않는 성혼을 매우 섭섭하게 여겼겠군요.

성혼: 그러나 저희 집은 실제로 임진 나루에서 20여리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또한 임금이 언제 이곳으로 피난 왔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호종하던 신하가 임금에게 거짓말을 하여 저를 불충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강민우: 성혼선생을 더욱 곤궁한 처지에 빠지게 한 것으로는 선조 임금에게 명나라와 일본 사이의 강화를 주장한 이정암(李廷馣)을 충신이라고 말한 사건도 있습니다. 선조 임금은 명나라가 일본과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싸워서 섬멸(殲滅:모조리 무찔러 멸망시킴)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성혼선생이 강화를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성혼: 선조 임금의 섭섭함을 부추긴 또 하나의 사건으로는 제가 내심으로 세자 광해군에게 선위하기를 기대했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인들은 개혁에 소극적인 선조 임금에 실망하여 광해군이 집권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럴수록 선조 임금은 세자를 더욱 싫어했습니다.

강민우: 이렇게 성혼과 임금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면서, 급기야 임금은 성혼의 모든 벼슬을 박탈하는 조처를 내립니다. 성혼선생은 가족들을 모두 평안도와 황해도에 남겨둔 체 홀몸으로 파주로 돌아왔으나, 집은 모두 불타 폐허가 되고 사찰에서 끼니를 얻어먹을 정도의 비참한 상황에 놓였다가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죠.

성혼: 저의 정치 행적은 말년에 선조 임금의 미움을 받으며 끝납니다. 그러나 생전에 이이와 힘을 합하여 임금을 성군으로 이끌고, 나라와 백성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한시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경장을 촉구하는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수차례나 올리고, 혁폐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과감하게 개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의 주장은 이이의 개혁안과 기본적으로 일치하여 이이의 개혁운동에도 크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벼슬을 사양했지만,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소를 올려 국정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강민우: 성혼과 이이를 흠모하고 따르는 유생들이 반대하는 세력보다 월등히 많았으므로 이들이 문묘에 배향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이와 성혼의 문묘 배향이 근 100년이 지나서 숙종 때에 이루어진 것은 아마도 치열한 당쟁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인과 그 후속 당파인 북인과 남인은 두 사람이 생전에 받았던 모함과 선조 임금이 성혼의 관작을 삭탈한 것을 근거로 줄기차게 문묘 배향에 반대했습니다. 반면 이이와 성혼의 문묘 배향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두 사람에게 씌워진 비난이 모두 모함이고 이들이야말로 깨끗한 선비의 표상이요, 조선 도학의 정통을 계승한 인물이라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서인이 독자적으로 집권한 1682년(숙종 8년)에 이르러 성혼과 이이는 함께 문묘에 배향되는 영예를 얻지만, 7년 뒤에 남인이 집권하면서 문묘에서 폐출됩니다. 그러다가 5년 뒤인 1694년(숙종 20년)에 서인이 재집권하면서 문묘에 다시 배향되어 왕조 말까지 이어집니다. 성혼의 일생과 사후의 명성은 이이와 하나로 결속되어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그 옳고 그름을 떠나 조선 후기 정치사의 한복판에 두 사람이 우뚝 서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혼을 단순히 재야의 처사로만 바라보는 것은 매우 협소한 시각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성혼의 학문은 뒷날 사위 윤황을 매개로 윤선거(尹宣擧)·윤증(尹拯)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성혼이 소론파 학문의 종장으로 추앙된 것도 그가 조선 후기 사상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혼: 저와 이이는 본래 한 몸처럼 살았으나, 후학들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면서 기호유학의 물줄기가 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제가 본래부터 소론의 성향이 있었다거나, 이이는 본래부터 노론과 같은 학풍이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강민우: 성혼선생은 부귀영화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과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임금에게 목숨을 걸고 직언을 토해내는 충성심, 이 둘로 똘똘 뭉친 참선비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조선 왕조를 500년간 이끈 정신적 기둥은 바로 이런 참선비들이 뿌리고 키운 씨앗에서 왔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혼: 과찬이십니다.

강민우: 지금 성균관대학교 경내의 문묘(대성전)에는 성혼선생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일부 유림이 제사를 올리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은 눈길을 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파주가 낳은 위인으로 이이가 있고, 이이의 제사를 모시는 자운서원(紫雲書院)이 법원읍 동문리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멀지 않는 곳에

성혼의 흔적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파주 파평면 눌노리 쇠내(우계)에 성혼과 성혼의 아버지 성수침, 그리고 성혼의 스승 백인걸을 모신 파산서원(坡山書院)과 성혼이 살던 집터, 그리고 우계서실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이의 분신이 성혼이요, 성혼의 분신이 이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쇠내 개울가에도 눈길을 돌리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시절, 평생의 지우를 만나다

강민우: 성혼과 이이의 친교관계가 얼마나 두터웠던 가를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성혼선생은 죽기 직전까지 이이의 제자들과 함께 그의 문집을 편찬하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물론 성혼은 이이의 문집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지만, 큰 틀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성혼선생은 이이를 존선선생(尊先先生)이라는 극존칭으로 불렀으며, 평소에도 "살아서는 이이와 생사를 같이하고 죽어서는 함께 열전(列傳: 일생의 업적을 기록한 책)에 오르겠다"라며 이이와의 일심동체를 말했습니다. 성혼선생 사후 100년 뒤에 문묘에 배향될 때, 이이와 함께 배향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성혼과 이이는 쌍벽을 이루며 선비사회에서 높이 추앙받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살아서도 한 몸 같았으며 죽은 뒤에도 함께 문묘에 배향됩니다. 그렇다면 성혼선생도 이이처럼 오늘날 우리 곁에 함께 있어야 마땅한데, 성혼선생은 아직 이이만큼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혼: 하하하. 제가 21세기 현대에는 이이보다 인기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강민우: 아닙니다. 성혼선생은 위대한 학자요, 교육자요, 선비였습니다. 평생을 병마와 싸우고, 종이로 옷을 지어 입고,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선조 임금이 내린 벼슬을 수십 차례나 거부하고 파주 우계(쇠내)의 오두막집에서 후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살던 이이와 송익필(宋翼弼, 1534~1599) 등 친구와 교유하면서 참선비의 삶을 실천하셨지요.

성혼: 제 일생에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한 것은 한 살 아래인 이이와의 만남입니다. 이이는 외가가 있던 강릉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그 뒤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에서 생활합니다. 17세에 어머니 신사임당을 서울에서 여의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19세에 금강산으로 들어가 승려가 됩니다. 제가 이이와 친교를 맺을 때가 20세였으니, 아마도 이이가 금강산에서 나와 백인걸을 만나러 파주에 들렀다가 저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이는 1년간의 승려 생활을 마치고 환속한 뒤로 자신의 승려 생활을 반성하는 「자경문(自警文)」을 쓰고, 본격적으로 유학 공부에 전념하고 서울에서 과거시험을 준비합니다.

강민우: 「자경문」은 '스스로를 경계하여 조심하는 글'이라는 뜻으로, 스스로 세운 인생의 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 자경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목표를 크게 가진다. ②말을 적게 한다. ③마음을 안정되게 한다. ④혼자 있을 때에도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한다. ⑤옳고 그름을 알기 위해 독서를 한다. ⑥재물과 명예에 관한 욕심을 경계한다. ⑦해야 할 일에는 정성을 다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단호히 끊는다. ⑧정의롭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진다. ⑨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면 나 자신을 돌이켜 보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⑩밤에 잘 때나 병이든 때가 아니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 ⑪공부를 게

을리하거나 서두르지 않는다. 공부는 평생 꾸준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이는 「자경문」을 써서 그것을 바탕으로 일상을 펼쳐나갑니다. 가끔 파주에 내려와 백인걸 문하에 드나들고, 성혼과 송익필 등과의 교유가 이루어집니다. 성혼선생은 20대에 또 한 사람의 학우로서 나이가 한 살 위인 송익필을 만나게 됩니다.

성혼: 송익필의 호가 구봉(龜峰)인데, '구봉'은 지금 파주시 교하면의 출판단지 부근에 있는 심학산의 별칭입니다. 송익필은 산 이름을 따서 호를 삼은 것입니다. 당시 송익필은 파주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와는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편지의 내용은 주로 학문에 관한 것들입니다. 송익필은 신분에 문제가 있어 처음부터 벼슬을 단념하고 학문에만 열중했습니다.

강민우: 송익필의 신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혼: 송익필의 할아버지 송린(宋璘)은 안돈후(安敦厚)의 천첩 소생인 감정(甘丁)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송사련(宋祀連)을 낳습니다. 송사련은 훗날 중종 때 권신으로 사림을 탄압한 남곤(南袞)·심정(沈貞)에게 아부하여 벼슬에 오르는데, 송사련의 아들이 바로 송익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송익필의 할머니는 안돈후의 천첩 소생이므로 신분이 미천했습니다. 천첩(賤妾)은 양인 남성이 천인 신분의 여성을 첩으로 둘 경우 그 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양인의 딸을 첩으로 삼으면 양첩(良妾), 기생이나 계집종을 첩으로 삼으면 천첩이 됩니다. 양인(良人)은 조선시대에 천민인 노비를 제외한 모든 계층으로, 양반·중인 및 일반 백성을 포괄합니다. 그럼에도 송사련은 안처겸의 역모를 고발하여 공신에 책봉되어 그의 형제들은 유복한 환경에서 교육받습니다.

강민우: 이 사건은 1521년 신사년에 발생한 신사무옥(辛巳誣獄)을 말합니다. 안처겸 집안과 가족처럼 지내던 송사련이 기묘사화 이후의 정치 상황에 대한 안처겸의 불만을 훈구계 권신인 남곤·심정에게 알리면서 발생합니다. 송사련은 처남인 정상(鄭鍇)을 시켜 안처겸이 이정숙(李正叔)·권전(權磌) 등과 함께 남곤·심정 등의 대신을 살해하기로 모의했다고 고발합니다. 남곤·심정 등은 이 사건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안처겸을 역모로 간주하여 안당(아버지)·안처겸·안처근(동생)을 비롯하여 이들과 평상시에 교류하던 많은 사림을 연루시켜 축출합니다. 송사련은 그 공으로 절충장군의 품계로 승진하고 죄인들에게서 몰수한 전답·가옥·노비를 받습니다.

성혼: 송익필은 재능이 비상하고 문장이 뛰어나 동생 송한필(宋翰弼)과 함께 일찍부터 문명을 떨치고, 명문자제들과 폭넓게 교유합니다. 초시(初試: 과거의 맨 처음 시험)를 한번 본 외에는 과거를 단념하고 학문에 몰두합니다. 특히 예학에 밝아 김장생(金長生)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또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 서인 세력의 막후 실력자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강민우: 그러나 송사련이 죽자, 1586년(선조 19) 동인들의 충동으로 안씨 집안에서 송사를 일으켜서 안처겸의 역모가 조작임이 밝혀집니다. 그 결과 송익필의 형제들이 안씨 집안의 노비로 환속됩니다. 아버지 잘못으로 뜻하지 않게 노비로 전락한 송익필 형제들은 안씨 집안에서 자신들을 죽여 복수할 것을 예감하고 이름을 바꾸고 도피생활에 들어갑니다. 이때

송익필은 이미 53세의 노인이었답니다.

성혼: 억울하게 죽은 안처겸은 고종사촌인 송사련의 신분이 비록 낮아도 가족처럼 따뜻하게 감싸주고 살았는데, 송사련은 항상 자신의 신분에 대해 열등감을 지녔습니다. 그러다가 사주를 보았는데, 자신은 부귀를 얻을 운이었고 안씨 집안은 망할 운이었습니다. 송사련은 자신이 본 사주를 믿고 있다가 정치상황에 대한 안처겸의 불만을 듣자, 드디어 운이 돌아왔다고 믿고 안처겸을 모욕죄로 고발하여 출세의 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송사련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성리학자의 길을 걷습니다. 특히 4형제 가운데 송익필과 그의 동생 송한필은 뛰어난 학자요 문장가로 이름을 날립니다.

강민우: 그러나 1589년 기축옥사로 동인들이 제거되자, 그의 형제들도 신분이 회복됩니다. 그 뒤에 또 동인들을 비난한 조헌(趙憲)의 과격한 상소와 관련하여 북인의 영수인 이산해(李山海)의 미움을 받아 동생 송한필과 함께 희천으로 유배됩니다. 1593년 사면을 받아 풀려나지만, 일정한 거처없이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며 불우하게 살다 죽습니다.

성혼: 이렇게 말년에 기구한 삶을 살다간 송익필이지만, 1586년 안씨 집안의 송사 전까지는 파주의 구봉산 아래에서 문호를 열어놓고 후진들을 양성합니다. 그 문하에서 김장생·김집·정엽·서성(徐渻)·정홍명(鄭弘溟)·강찬(姜瀷)·김반(金槃)·허우(許雨) 등 많은 학자들이 배출됩니다. 시와 문장에 모두 뛰어나 이산해·최경창(崔慶昌)·백광훈(白光勳)·최립(崔岦)·이순인(李純仁)·윤탁연(尹卓然)·하응림(河應臨) 등과 함께 선조 때의 팔대문장가로 불렸습니다.

강민우: 송익필의 도피 생활을 도와준 사람은 평소에 절친하게 지내던 정절과 김장생 같은 제자들입니다. 성혼선생은 그를 도와줄 힘도 없었거니와, 안씨 집안이 가까이 살고 있어서 그럴 처지도 못되었죠. 그래서 점차 도피하고 있던 송익필과의 편지 연락도 끊어지게 됩니다.

성혼: 이이와 사별하고, 송익필과 생이별하여 파주의 삼현(三賢) 가운데 저만 홀로 남게 됩니다. 송익필은 자신의 신분적 약점 때문에 도리어 많은 시기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리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정치 감각도 뛰어나서 서인 세력의 막후 실력자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성혼과 이이의 어떻게 다른가

강민우: 성혼선생이 이이와 유교적 이상국가의 꿈을 함께 꾸고,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면서 고락을 나누며, 죽어서는 문묘에 함께 배향되는 운명 공동체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비슷한 점만 공유한 것이 아니라, 학풍이나 기질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성혼: 두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잘 알고 있어서 서로 상대방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벗의 단점을 솔직하게 지적하여 착한 길

로 인도하는 것은 친구 간의 의리로서, 유학에서는 이를 책선(責善)이라고 부릅니다. '책선'은 '착한 일을 하라고 나무라다'는 뜻으로, 모든 인간관계에 널리 쓰지 않고 친구 사이에서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착한 일을 권한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저희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책선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면 주저없이 지적하여 고치라고 권고합니다.

강민우: 바로 그런 보완적 자세가 두 사람의 학문과 인격을 높이는데 적잖이 기여를 했겠습니다.

성혼: 저희 두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빼놓으면 섭섭해 할 친구가 또 있습니다. 파주의 구봉(龜峰: 지금의 파주 고하읍 심학산) 아래 살던 송익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 사람을 묶어서 삼현(三賢: 세 분의 현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기이하게도 셋은 모두 파주 사람이고, 나이도 엇비슷하여 송익필이 1534년생, 성혼이 1535년생, 이이가 1536년생으로 각각 한 살 차이입니다.

강민우: 그러나 세상을 떠난 나이는 이이가 49세, 성혼이 64세, 송익필이 66세였으니, 출생 순서와는 정반대로 세상을 떠나셨네요. 가장 오래 살았던 송익필은 죽던 해에 아들에게 부탁하여 세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 『삼현수간(三賢手簡)』이라는 책자를 만들었다지요. 세 사람의 교우 관계를 정리한 이 책에서 '삼현'이라는 말이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성혼: 『삼현수간』은 일명 「현승편(玄繩編)」라고도 합니다. 본래 출처는 송익필의 문집인 『구봉집』속에 실려 있는 「현승편」인데, 후대의 유학자가 세 사람의 친필 서한만을 묶어 『삼현수간』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삼현수간』은 송익필 집안에서 바로 직계 제자인 김장생 집안으로 전해지고, 김장생의 수제자인 송시열에게 전해지고, 다시 송시열의 수제자인 권상하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삼현수간』의 원본은 호암미술관에서 소장되어 있습니다.

강민우: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송시열이 정치적으로 불우하여 귀양 갈 때도 이이 일기 친필본과 이 『삼현수간』만은 꼭 끼고 다녔다고 할 정도로 애지중지 했다지요. 아무튼 이 『삼현수간』은 이들 삼현의 학통을 이은 기호학파의 중요한 원류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혼: 저희 세 사람은 동시대에 한 고장에서 학자가 배출되어 서로 책선하고 격려와 경쟁을 통해 자신들의 학문을 키웁니다. 더욱이 수많은 후학들을 키워내어 조선 후기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정치세력과 학파를 형성합니다. 조선 후기 문묘에 배향된 인물이 대부분 이들 삼현의 학통을 이은 기호학파에 속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강민우: 당시 파주의 삼현이 배출한 후학들은 어림잡아 수백 명에 이릅니다. 삼현 가운데 가장 많은 후학을 기러낸 인물은 단연코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에 서실(서재)을 세워 40여 년간 후학을 양성한 성혼선생입니다.

성혼: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삼현이 모두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후학들은 이

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배울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더 큰 학덕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호학파 성리학자들의 진원지가 이곳이라고 말합니다. 성리학을 일보 전진시킨 조선 후기 실학의 진원지도 따지고 보면 이 지역에서 출발하여 서울을 거쳐 한강 이남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강민우: 성리학의 중심지로서 파주와 비교될 만한 지역이 있다면 어디라고 보십니까?

성혼: 파주보다 조금 앞서 이황이 후학을 길러낸 경상도 안동(安東) 지역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황의 학문과 행실은 이이를 비롯한 저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삼현의 학문도 영남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두 지역 간에는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황의 영향을 받은 영남학파에서도 유성룡(柳成龍)을 비롯한 훌륭한 성리학자들이 배출되었지만, 그 힘이 기호학파의 위세를 압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황 이후로 영남학파 가운데 문묘에 배향된 인물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아마도 당시 정치를 주도한 세력이 서인인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강민우: 성혼선생과 이이의 성격상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성혼: 성격상으로 보면, 이이와 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이가 명석하고 개방적이며 자신만만한 외형적 기질을 가졌다면, 저는 세심하고 근엄하며 겸손한 내향적인 기질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민우: 이이의 외향적 성향은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으로 비쳐져서 주변의 질투와 미움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성혼선생은 겸손하고 자중자애한 도사의 모습을 지녀 후학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다지요.

성혼: 이런 차이는 천부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환경의 영향도 없지 않은 듯합니다. 이이는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등 외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친족인 덕수 이씨(德水 李氏) 집안의 가풍은 오히려 그의 삶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방계 친족인 이기(李芑)는 명종 때 윤원형(尹元衡)과 손잡고 을사사화를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인물입니다. 아버지 이원수(李元秀)도 어머니 신사임당이 '웬쑤'라고 불렀다는 풍설이 나돌 만큼 조신한 선비가 못됩니다. 그래서 이이는 친가보다 외가인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기묘명현(己卯名賢)의 한 사람인 외할아버지 신명화(申命和)를 더 존경했습니다. 아마 이런 가정환경이 이이로 하여금 한층 외향적인 성향을 갖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기묘명현'은 조선 중종 14년(1519)에 일어난 기묘사화로 화를 입은 신하들을 말합니다. 한편 저는 창녕 성씨(昌寧 成氏) 가문의 가풍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성수침은 조광조의 문인으로서 평생을 파주의 은일처사로 살았습니다. 먼 친척으로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삼문(成三問)과 생육신의 한 사람인 성담수(成聃壽)가 있는데, 이들 역시 의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들입니다. 저는 의리와 지조를 중시해온 성씨 집안의 가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특히 아버지의 영향은 직접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저로 하여금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고 세속을 멀리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민우: 이이와 성혼의 기질적 차이는 학풍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로 드러났겠습니다. 두 사람은 주자학을 유일한 정학(正學)으로 받아들이고 유교적 이상 국가를 추구한다는 점은 같지만, 성혼선생은 이이보다 주자학을 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았던 것이죠.

성혼: 저는 주자학에 이론을 제시하거나 토를 다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하고, 오직 주자학의 본질을 체득하여 실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주자학을 가장 충실히 따르고 실천하는 인물로 34세 연상인 이황을 꼽았으며, 그에 대한 무한 신뢰와 존경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이는 저와 생각이 다릅니다. 큰 틀에서 주자학이 정학인 것은 인정하지만, 주자학이 이기설을 비롯한 형이상학의 모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주자학이 아닌 선가(禪家)나 노장사상, 제자백가의 여러 사상까지도 폭넓게 공부하면서 주자학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태도를 취합니다.

강민우: 그래서 주자가 증손(增損)한 『여씨향약(呂氏鄕約)』도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수정하여 여러 종류의 향약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던 것이군요.

성혼: 이이는 '백성을 변화시켜 풍속을 이룬다'는 목적으로 서원향약·해주향약·사창계약속·해주일향약속 등을 지역의 특성에 알맞도록 제정하여 실시합니다. 여씨향약의 4대 덕목인 덕업상권·과실상규·예속상교·환난상휼 중에서도 특히 서로 어려울 때 구제한다는 환난상휼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주자의 『증손여씨향약』을 좀 더 보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약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고 인간관계를 모든 가치의 근원에 두며 공동체 의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강민우: 이이가 『성학집요』를 편찬한 것도 당시 제왕 학문의 교과서로 알려진 진덕수(陳德秀)의 『대학연의(大學衍義)』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여기고 보완했던 것이죠. 중국 송나라 때 유학자 진덕수가 벼슬을 하다 재상 사미원(史彌遠)의 탄핵으로 파직 당하자, 시골에서 『대학연의』를 집필하여 임금에게 바칩니다. 이 책은 이후 조선의 선비들에게 널리 읽힙니다. 중종은 이 책을 간행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혼란은 학문이 장려되는지의 여부에 있음을 지적하고, 이 책을 통해서 모든 선비들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대강을 알아서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 뒤부터 이 책은 과거시험 때마다 출제와 채점의 기준이 되니,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에게 필수과목으로 지목됩니다.

성혼: 『성학집요』는 이이가 임금의 학문을 위하여 1575년에 저술한 정치서적입니다. 이이가 홍문관 부제학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서문에 의하면, 『성학집요』는 사서와 육경에 씌어 있는 도(道)의 내용만을 뽑아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서육경은 너무 방대하여 거기에서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길을 잃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핵심 내용만을 뽑아 놓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도를 쫓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현들의 모든 계획이 『대학』의 기본 이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대학』을 기본 지침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이는 『대학』을 '덕으로 들어가는 문(入德之門)'라고 말합니다.

강민우: 성혼선생은 이이의 명석한 이론에는 항상 경탄을 보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고 아쉬운 감정을 가지기도 했다죠.

성혼: 제가 우려한 것은 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늘같이 믿고 따르는 선현들의 학설이 아직 원숙하지 않은 30대의 젊은 이이에 의해 비판받는 것입니다. 주희나 이황의 권위가 손상당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이의 명쾌한 이론이 머리로는 승복하면서도 가슴으로는 승복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학술적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우: 성혼선생은 제자를 가르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근엄함과 단정함, 그리고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전을 읽을 때에도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성인의 말씀을 깊이 사색하면서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성혼: 제가 따로 저의 학설이나 주장을 담은 저서를 내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공자의 술이부작(述而不作)의 태도를 옳은 것으로 봅니다. '술이부작'은 성현의 말씀을 가르칠 뿐 독자적인 의견은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술이부작'은 『논어』「술이」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으로, 학자의 겸손한 자세와 객관적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성현을 능가할 수 없는 후학은 성현의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강민우: 성혼선생은 성현의 말씀을 전달할 때,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여 듣는 사람이 지루함이나 피곤함을 느끼게 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지요.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면서 자신이 남에게 말을 많이 하여 폐를 끼친 것을 반성하고, 반면에 다른 사람이 성혼선생의 약점을 지적하면 상대가 제자라도 받아들였던 것이죠. 자신의 단점과 부족함을 항상 걱정하고 반성하는 시각에서 보면, 자기주장이 강하고 성현의 약점을 거침없이 비판하는 이이와는 비교되며, 이이의 이러한 모습이 매우 위험한 일로 보이기도 했겠습니다.

성혼: 저는 이이의 이러한 비판적 행동이 그의 학문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이는 이미 30대에 『동호문답』·「만언봉사」 등을 내고, 40세에는 진덕수의 『대학연의』를 대체하기 위해 『성학집요』를 편찬하는 등 발 빠른 저술 행보를 보이며 이름을 떨칩니다. 그러나 저의 눈에는 이이의 저술 활동이 '술이부작'의 정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행위로 보였습니다.

강민우: 벼슬을 기피한 성혼선생의 눈에 이이의 과거 응시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기도 했겠습니다.

성혼: 이이는 과거 응시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는 이이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4형제의 가솔들까지도 껴안고 살았기 때문에 100여명에 이르는 식구를 거느리고 있어서 심각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이이는 선조와 뜻이 맞지 않아 수시로 벼슬을 버리고 향촌으로 돌아갔지만, 임금이 부르면 사양하지 않고 지체 없이 달려갔습니다. 이러한 처신도 저의 눈에는 선비답지 못한 행위로 비쳐졌습니다. 저는 이이에게 가정 형편을 이유로 벼슬하면 언젠가는 이욕에 매달리는 타락한 선비가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강민우: 벼슬살이에 관한 한 성혼선생은 이이와 다른 길을 걸었던 것이죠. 과거도 일찍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34세에 학생으로 천거된 뒤 죽을 때까지 30년간 수십 차례 벼슬을 받았으나, 실제로 복무한 것은 모두 합쳐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1년 중에서도 정식으로 관청에서 근무한 것은 몇 달 안 되고, 대부분은 성혼선생의 사퇴를 임금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명목상으로만 벼슬한 것입니다.

성혼: 제가 처음 받은 벼슬은 종9품의 참봉(參奉)이었는데, 벼슬을 사양할 때마다 품계가 높아져서 마지막에는 종2품 참판(參判)과 정2품의 참찬(參贊)에까지 올랐습니다. 문과도 거치지 않은 제가 재상의 반열에 오른 것은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이이가 29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했지만, 그가 마지막 받은 벼슬은 정2품 판서(判書)를 거쳐 종1품의 찬성(贊成)에 그쳤으니, 제가 받은 혜택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강민우: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벼슬길에 나아간 것은 이이의 충고와 권고를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죠.

성혼: 비록 이이의 권고를 받아들여 잠시나마 벼슬에 나아갔지만, 제가 평생 벼슬을 멀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비는 벼슬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과 건강문제가 이유였지만, 한편으로는 선조가 겉으로는 선비를 우대해도 속으로는 선비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이의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벼슬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욕과 명예를 추구하는 행위로 끝나기 때문에 자신의 지조와 신념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이이가 비슷하면서도 달랐던 점입니다.

강민우: 성혼선생이 선비의 지조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신념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 환경의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성혼선생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파주의 우계에 있는 본가는 안채와 사랑채(서재)가 나누어진 몇 칸짜리 집으로, 손님이 며칠씩 묵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성혼: '죽우당'으로 불리는 서재가 있는데, 이 방은 원래 아버지 성수침이 사용하던 사랑채였습니다. 집 주변에는 약간의 농토가 있어서 몇 명의 종(노비)을 데리고 직접 농사일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36세가 되던 1570년(선조 3년)에는 죽우당의 동쪽에 3칸짜리 우계서실을 지었는데, 기와집입니다. 전라도 순창(淳昌)에도 몇 이랑의 토지가 있어 송익필이 노비가 되어 유랑할 때 그곳에서 수확한 곡식 일부를 가져다준 일도 있습니다.

강민우: 임진왜란 중의 기록을 보면, 이 땅을 팔아서 서울 근교의 여러 곳에 땅을 사겠다고 말한 기록이 보입니다. 그밖에 황해도 배천(白川)에도 노비가 살고 있어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혼선생은 이이보다 집안 사정이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혼: 저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파주의 향양리에도 가끔 머물렀는데, 이곳에는 재실(齋室: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세운 건물)과 제전(祭田: 제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된 토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관직에 오른 적이 없었으니 가정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환곡(還穀: 국가 구휼제도로서 춘궁기에 대여했다가 추수 후에 회수하던

곡물)을 받지 않으면 봄철을 넘기기 어려웠으니, 항상 생활에 곤궁을 느끼며 살아갈 정도였습니다. 다만 이이처럼 많은 가솔을 거느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외아들이므로 조카들이 없고,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습니다. 딸은 시집가서 출가외인이 되었고, 두 아들 가운데 장남 문영은 19세에 일찍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문준만이 남았으니 가솔은 비교적 단촐하여 이이처럼 가솔들에 대한 심한 압박감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강민우: 성혼선생의 생활도 매우 어려웠지만 이이보다는 나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이는 부모의 재산을 5남매가 똑같이 나누어 가졌기에 물려받은 재산이 극히 적었습니다. 이이는 두 형님 이번과 이선, 누이 이매창, 동생 이우 모두 5남매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학문을 강론하기 위해 집에 모일 때에도 이이의 집은 좁아서 모이지 못하고 성혼선생의 집에 모이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성혼: 이이는 가난하여 파주에는 후학을 가르치는 서실을 세우지 못하고, 재산을 가진 처가가 있던 해주에 가서 서실을 세웁니다. 저의 경제력이 이이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었지만, 임진왜란을 만난 이후 만년에는 처참할 정도로 곤궁했습니다. 집이 불타고 먹을 양식도 없고 입을 옷이 없어서 종이로 만들어 입는가 하면, 관직에 있는 친구들에게 옷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뒤에는 절에서 밥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이이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견하는데 그쳤지만, 저는 전쟁의 참혹함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이의 저서나 언행에 드러난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이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이 보였고, 그의 학설이 가진 우수성에 머리를 숙여졌습니다.

강민우: 그래서 성혼선생은 이이를 단순한 친구로 보지 않고 선생으로 존경했던 것이군요. 특히 이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살아있을 때보다 이이를 한층 높여 '존선(尊先)선생'으로 부르면서 그의 문집 편찬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거죠.

성혼: 이이가 죽은 뒤에야 그의 학문을 후세에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와 이이의 학문과 기질의 차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학문은 이이가 저보다 뛰어나고 도덕은 제가 이이보다 뛰어났다고 말해도 좋을 듯합니다. 이 점은 두 사람이 서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강민우: 일찍이 성혼선생이 학생으로 천거 받을 때 선조 임금이 이이에게 성혼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자, 이이는 "만약 견해의 경지를 가지고 논한다면 제가 다소 나은 점이 있겠으나, 품행의 독실함은 제가 성혼에게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평가야말로 두 사람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이는 선조 임금에게 성혼의 재주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재주가 똑같이 않으니 홀로 경세제민(經世濟民: 세상을 다스려서 백성을 구제함)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자가 있고, 선을 좋아하여 여러 사람의 재주를 쓸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성혼의 재주가 홀로 경세제민의 책임을 맡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지나치지만, 사람됨이 선을 좋아하니 선을 좋아하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 충분합니다. 이 어찌 쓸 만한 재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혼선생이 경세제민을 이루기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선을 추구하는 도덕성은 매우 높다는 말이군요.

성혼: 저와 이이는 각기 독특한 개성을 지녔으며 그 개성이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서로 책선하면서 충돌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갔습니다. 두 사람은 죽은 뒤에도 한 쌍으로 엮여져서 문묘 배향이 추진되고, 숙종 때에는 함께 문묘 배향이 이루어집니다. 이후에도 함께 폐출되고 또 다시 함께 배향되는 기이한 운명 공동체를 이룹니다.

강민우: 다만 두 사람이 후세의 당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불행하게도 두 당파로 갈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숙종 때에 서인이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면서, 이이는 노론의 추앙을 더 많이 받고 성혼은 소론의 추앙을 더 받습니다. 이는 성혼의 외증손자 윤증(尹拯)이 소론의 영수가 된 것이 그 계기입니다. 하지만 이념상으로 보면 명분보다 실리를 존중하는 소론의 정책과 성혼의 이념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성혼: 제가 실리적 모습을 보인 것은 임진왜란 중에 선조보다 광해군에 기대를 걸었던 것뿐입니다. 이는 당시 국내 상황의 현실성을 고려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저는 결코 실리주의자가 아닙니다. 저의 직계 제자들은 대부분 벼슬을 포기하거나 벼슬을 하다가도 향리로 은퇴하여 지조를 지키다가 세상을 떠난 인사가 많다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비록 그들의 후학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대립했지만, 노론과 소론 모두 저와 이이를 동시에 존경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지극한 효심을 보여주다

성혼: 제가 30세 되던 1564년(명종 19년) 1월에 아버지 성수침의 상을 당합니다. 지병인 풍병(중풍)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강민우: 성혼선생은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아버지를 간호했다죠. 성수침은 도리어 아들이 병날까 걱정하여 밤이 깊으면 물러가 쉬게 했으나, 성혼선생은 '예예' 대답하고 나와서는 방문 밖에서 아버지를 지키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셨더라구요.

성혼: 어머니는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시고 여동생은 출가했으므로 병간호를 책임질 사람은 외아들 저뿐이었습니다. 물론 부인과 두 아들이 있었지만, 이들에게 간호를 미루지 않았으며 아들들은 병간호하기에는 아직 어렸습니다. 어머니 파평 윤씨는 1561년(명종 16년) 12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강민우: 성수침은 부인을 떠나보내고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으니, 상주인 성혼선생은 어머니 상복을 벗자마자 또 아버지 상복을 입게 된 저죠.

성혼: 그렇습니다. 저는 조상 무덤이 있는 파주 향양리에 아버지를 안장하고, 무덤 옆에서 3년간 여묘살이(상주가 무덤 근처에서 여막(廬幕)을 짓고 살면서 무덤을 지키는 일)를 했습니다. 삼년상을 마친 뒤에는 아버지 신주를 모시고 우계로 돌아와 어머니 신주와 함께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며, 모든 의식은 『주자가례』를 따랐습니다.

강민우: 신주는 죽은 사람의 위패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혼: 그렇습니다. 시신을 매장한 다음 신주를 만드는데, 혼이 여기에 깃든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혼백은 빈소에 모시다가 대상(大祥: 사망한 날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두 번째 제삿날)이 지난 뒤 태워버리며, 신주는 그 4대손이 모두 죽을 때까지 사당에 모시고 지내다가 산소에 묻습니다.

강민우: 당시 장례 절차는 모두 『주자가례』에 따라서 했던 것이겠군요. 『주자가례』의 내용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혼: 『주자가례』는 중국 남송시대 주자(주희)의 저서로, 사대부 집안의 예법과 의례에 관한 책입니다. 본래 책 제목은 『가례(家禮)』인데, 주자가 저술했다고 하여 통상 『주자가례』라고 부릅니다. 주자는 성리학을 집대성한 학자인데, 그의 성리학에서 예와 의례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대부들이 준수할 예와 의례를 정리할 목적으로 편찬한 것이 바로 『주자가례』입니다.

강민우: 성리학에서 예와 의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혼: 성리학과 예학은 이론과 실천의 관계로써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성리학의 중심 내용은 성즉리(性卽理)입니다. '성즉리'란 천지의 리가 인간에게 성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천지의 리가 인간에게 성으로 구비됨에 따라, 예는 단순히 행위의 외적 형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 행위원리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의·예·지와 같은 성이 인간에게 본성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갖추어진 본성의 자연적 발현에 따라 '임금은 어질고, 신하는 공경하고, 부모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도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 예의 실천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예는 외적인 행위규범의 의미뿐만 아니라 내적인 행위원리의 의미를 가짐으로써 '왜 예를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강민우: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예를 매우 중시했던 것이군요. 그리고 일상에서 의례는 성년식에 관한 관례, 혼인에 관한 혼례, 장례에 관한 상례, 제사에 관한 제례로 대표되겠군요.

성혼: 그렇습니다. 고려 말에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주자가례』도 함께 들어옵니다. 이 책은 조선 건국 이후 일반 사대부 집안뿐만 아니라 왕실의 국가의례를 만들 때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책의 내용은 관례·혼례·상례·제례의 네 가지 의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례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주자가례』의 상례는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는 전통적인 상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민우: 성혼선생은 부모의 제사뿐만 아니라 외가의 제사에도 신경을 썼답니다.

성혼: 외할아버지 윤사원이 본처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해 제사가 끊어질 형편에 놓이자, 제

가 외할머니에게 청하여 서자(庶子: 첩이 낳은 자식)가 제사를 받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자도 후사 없이 죽자, 제가 외가의 신주를 아예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던 집안의 사당 뒤에 따로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습니다.

강민우: 외손자가 외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일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혼선생의 후손들이 윤사원의 묘소를 관리하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성혼: 서자에게 제사 상속권을 준 것은 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이의 처가에 적자(嫡子: 정실부인에서 태어난 아들)가 없자 서자에게 제사 상속권을 주도록 조처하고, 이이가 죽을 때에도 적자가 없자 서자에게 제사 상속권을 줍니다. 물론 이런 조처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있는 것이지만, 양자를 들여서 제사 상속권을 주던 관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강민우: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으로, 오늘날 헌법에 해당합니다. 헌법과 경국대전은 모두 나라를 다스리는데 근본 규범이 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이 1948년 7월 17일입니다. 제헌절이죠.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과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내용이 담긴 근본 규범입니다. 한 나라의 기본이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법이지요.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공포한 7월 17일은 태조 이성계가 개경의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라 조선 왕조를 연 날(음력 7월 17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이어나가는 의미로 이날에 맞추어 국회에서 헌법을 공포한 것이라고 합니다.

성혼: 조선 왕조에도 오늘날의 헌법처럼 나라를 다스리는데 기본이 되는 훌륭한 법전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스승 이황을 만나다

강민우: 1568년(선조 원년) 가을 성혼선생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이황을 찾아가 인사를 드립니다. 이황은 문과에 급제한 뒤로 여러 요직을 거쳤으나, 병약함을 이유로 여러 차례 귀향하기를 반복합니다. 선조가 즉위하자, 그를 다시 불러 의정부 우찬성(右贊成: 종1품)과 대제학(정2품) 등의 높은 벼슬을 내리고 경연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이황은 1568년 12월에 필생의 노작인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지어 임금에게 바치는데, 17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선조가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도록 그 요령을 도표로 그린 책입니다. 원제목은 『진성학십도차병도(進聖學十圖箚幷圖)』입니다. 여기에서 '진(進)'은 임금에게 올린다는 뜻이며, '차(箚)는 내용이 비교적 짧은 글을 말하니, '임금께 성인이 되는 10가지 도설을 올리는 글로, 그림을 첨부한다'라는 뜻입니다.

성혼: 『성학십도』는 선조 임금으로 하여금 성왕(聖王)이 되게 하여 온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국충정에서 저술된 것입니다. 『성학십도』는 10개의 그림과 해설로 되어 있는데, 태극도(太極圖)·서명도(西銘圖)·소학도(小學圖)·대학도(大學圖)·백록동규도(白鹿洞規圖)·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인설도(仁說圖)·심학도(心學圖)·경재잠도(敬齋箴圖)·숙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입니다.

강민우: 당시 이황은 68세의 노학자로서, 최고의 성리학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기에 젊은 이이와 성혼도 그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했더라구요.

성혼: 이이는 이미 23세 때 성주목사로 있던 장인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안의 도산(陶山)에 있던 이황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황은 35세 연하인 이이를 만나보고 "후생이 두렵다"하면서 그의 재능을 극찬했습니다. 저는 34세 때 처음으로 이황을 만났지만, 이황의 학문에 대한 숭상은 이이보다 강했습니다. 이이는 이황의 학문에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지만, 저는 이황의 학문과 언행이 주자학의 정맥을 이은 최고의 학자로 보았습니다.

강민우: 1572년(선조 5년)에 38세의 성혼과 37세의 이이가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기설·사단칠정설·인심도심설 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도 따지고 보면 이황의 학설을 따르려는 성혼과 그것을 비판하려는 이이의 입장 차이가 바탕에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논쟁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는 이유는 이들 학설에 대한 견해차이라기보다는 이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이이의 태도가 못마땅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여요.

성혼: 저는 이황을 지극히 존경하고 사모하여 항상 제자들에게 "마음을 간직하고 수습하는 것이 바로 심법의 요체이다"라고 하는 그의 심법을 중시합니다. 심법(心法)은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방법입니다. 1569년(선조 2년)에 이황이 예안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 가서 전송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미 출발했다는 소식을 중도에 듣고 우계로 돌아왔습니다. 우계로 돌아와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기사년(선조 2년) 늦은 봄에	己巳春暮月
퇴계께서 홀연히 고향으로 가셨네	退溪浩然歸
서울에는 우러를 분 적어지고	京城少宗仰
선비는 의지할 곳 잃었네	士子失所依
대로(大老: 덕망이 높은 노인)께서 복이 없으시니	大老也無福
천운이 쇠미한 때가 되었네	皇天時運衰
산중에서 부질없이 탄식하며	山中空竊嘆
한밤중 눈물만 줄줄 흘리네	中夜涕漣而

강민우: 성혼선생은 36세에 네 번째 벼슬로 적성현감(종6품)에 제수되지만, 역시 임금에게 사은만 하고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직후, 예안으로 물러나 있던 이황에게 편지를 올려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은지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죠. 그러나 이황은 병중에 있었고, 그해 11월 8일 향년 70세로 세상을 떠났으므로 답장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성혼: 고향으로 돌아온 직후에 후학 교육에 힘쓸 것을 결심하고, 본가 동편에 3칸 남짓한 기와집을 지어 '우계서실'이라 불렀습니다. 본가 사랑채에도 아버지 성수침이 공부하던 '죽우당'이라는 서재가 있어서 이 방을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사용했지만, 공간이 좁아 많은 학

생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미 30세 무렵부터 성혼의 학행을 듣고 조헌(趙憲)을 비롯한 원근의 학생들이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이런 이들이 많아지자 본격적으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따로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강민우: 성혼선생 자신은 초가집에 살면서 지와집으로 학교를 지은 것은 후생들에게 숙식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려는 뜻이 담긴 듯합니다.

성혼: 당시 이이도 자주 벼슬을 버리고 파주로 귀향하여 후학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이는 우계서실이 세워지던 해 10월에 처가가 있는 황해도 해주 야두촌(野頭村)으로 내려가 살 터전을 마련합니다. 고향인 율곡리의 임진강 나루터에서 해주까지는 뱃길이 있어서 그리 먼 곳이 아니었고, 이이의 처가가 부자여서 그 경제력을 빌릴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 1578년(선조 11년)에는 경치가 좋은 야두촌의 석담(石潭) 계곡에 학교를 세워 '은병정사'라고 했는데, 우계서실보다는 8년이 늦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계서실도 이황이 1560년 예안에 세운 도산서당보다는 10년이 늦은 것입니다.

강민우: 우계서실이 만들어진 뒤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자, 이듬해 봄에는 학생들이 지켜야 할 공동생활의 규칙에 해당하는 학규를 만들어 「서실의(書室儀)」라고 했다죠. 성균관의 유생들이 지켜야 할 학칙을 참고하고, 주희가 백록동서원에서 만든 학규도 참고하여 22개조로 나누어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혼: 이 학규는 이이가 1578년에 제정한 「은병정사학규」보다 7년이 앞섭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서실에 들어온 자는 먼동이 틀 때 일어나서 스스로 침구를 개어 정돈해야 한다. ②나이 어린 자가 빗자루를 들고 방 안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③차례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바르게 해야 한다. ④각자 독서하는 곳에 나아가서 서책을 정돈하고 책상에 단정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조용히 읽고 외우되, 어지러운 생각을 하지 말고 딴 일을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남들과 잡담을 나누지 말고 제멋대로 출입하거나 일어나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⑤밥을 먹을 때에는 나이 순서대로 앉아서 조용히 정돈할 것이며, 희롱하고 장난하며 음식을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등입니다.

강민우: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군요. 이상의 내용으로 모두 2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구요.

성혼: 이상의 22개 조항은 서실에 들어온 자가 준수하여 각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약조를 어기고 게으르고 방자하여 독서를 부지런히 하지 않거나, 남을 조롱하고 업신여겨 함부로 대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른과 벗들을 공경하지 않고 남의 타이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여러 학생들이 즉시 의논해서 저에게 와서 알려 주도록 합니다.

강민우: 성혼선생이 만든 「서실의」의 내용을 한 마디로 말하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앉을 때의 순서는 나이순으로 하는데, 이는 신분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성혼 문하의 학생들은 노비를 제외하고는 신분 차

별을 두지 않았다고 하죠.

성혼: 이 학칙을 이이가 8년 뒤에 해주에서 은병정사를 세우고 만든 「은병정사학규」와 비교해 보면, 22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것을 비롯하여 「서실의」와 내용상으로도 서로 같은 점이 많습니다. 다만 「은병정사학규」는 내용이 한층 구체적입니다.

강민우: 우계서실의 생활 규범으로 「서실의」를 만들고, 같은 해 가을에 학생들이 알아야 할 공부의 지침서로서 『위학지방(爲學之方)』이라는 교재를 만들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혼: 이 책은 주자의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의 어록 등을 기록한 책)』과 『주자어류(朱子語類: 주자와 그 문인들의 문답을 기록한 책)』에서 직접 아동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 만든 것입니다. 책머리에서 저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이것을 읽고 기본을 세워야 하므로 꼭 읽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뒤에 이름을 『주문지결(朱門旨訣)』로 바꾸었는데, 1577년(선조 10년)에 이이가 어린이들의 학습을 위하여 지은 『격몽요결』보다 6년이 앞섭니다.

강민우: 그렇다면 교육에 관해서는 이이가 성혼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학지방』과 『격몽요결』의 내용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는 『위학지방』이 남아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아쉬울 뿐입니다. 성혼성생이 이이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비슷한 행보를 보이지만, 적어도 교육 사업의 일은 성혼선생이 이이보다 앞선 것 같습니다. 후학을 가르치는 학교인 우계서실(또는 우계정사)을 세운 것이 이이의 은병정사보다 앞서고, 학생들의 교육 지침서로 『위학지방』을 편찬한 것도 이이의 『격몽요결』보다 몇 년이 빠릅니다.

성혼: 저는 임진왜란 때 고향을 떠난 기간을 제외하고 죽을 때까지 우계서실에서 약 24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학생들의 수가 대략 90여명에 이릅니다. 그밖에도 이이와 성혼의 두 문하에서 공부한 학생이 대략 27명 정도이며, 송익필 등 다른 문하에서 함께 가르침을 받은 학생이 대략 18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원이 확실치 않은 문인들이 80명에 이르니, 이들을 모두 합하면 대략 216명 정도입니다.

강민우: 성혼성생의 문하생 가운데 높은 벼슬을 받은 인물도 적지 않겠습니다.

성혼: 정엽·윤황처럼 학식과 덕망으로 이름을 떨치거나 성리학을 발전시킨 인물이 있고, 김장생·김집처럼 낮은 벼슬을 했거나 재야의 처사로 살면서 학문에 몰두하여 성리학을 전수한 인물도 적지 않습니다. 김장생·김집은 저처럼 성균관 문묘에 배향되어 제사를 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귀(李貴)처럼 인조반정을 주도했거나 조헌·김덕령(金德齡)·양대박(梁大樸)처럼 왜란 때 의병에 참여한 충신도 적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조헌은 문묘에 배향된 인물입니다. 그밖에 문묘에 배향된 송준길·송시열·박세채 등도 저에게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저의 학통을 이은 학자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선 후기 6명의 문묘 배향자가 저의 학통을 이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정여립처럼 스승을 배반하고 반역에 가담한 인물도 있고, 인조 때 반정공신이던 김자점(金自點)처럼 반역죄로 처형된 인물도 있습니다.

강민우: 문묘에 배향된 인물답게 훌륭한 제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성혼선생의 학문세계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황과 기대승이 사단칠정을 토론하다

강민우: 성혼선생이 38세 되던 1572년(선조 5년)은 한국 성리학의 역사를 뜨겁게 달군 여름입니다. 성혼선생과 이이가 성리학의 가장 큰 철학적 주제인 리와 기, 사단과 칠정, 그리고 인심과 도심의 내용을 둘러싸고 편지를 통해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이때 이이는 병으로 홍문관 부응교(副應敎: 종4품)를 그만두고 파주에 내려와 있어서 학문적 토론을 한 만한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혼: 사단과 칠정이 조선 중기 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 이유는 당시의 양심적인 성리학자들이 사화를 일으킨 권신(權臣: 권력을 가진 신하)과 척신(戚臣: 왕실과 혼인을 맺는 신하)의 횡포와 비리를 목도하면서, 이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가치 기준을 세울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가치 기준을 세우려면 반드시 우주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때 우주는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근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인간의 본질을 우주의 질서에 근원지어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선악으로 말하면, 우주의 질서는 악이 아니라 선이므로 우주 질서 내의 인간의 본질도 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민우: 주자는 우주와 인간의 관계 전반을 리와 기의 개념을 가지고 개략적인 설명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치밀한 분석이 16세기 중엽의 조선에서 전개됩니다. 이것은 세계 철학사에서도 일찍이 없던 심오한 철학논쟁으로 발전합니다.

성혼: 사단과 칠정은 인간 본성(또는 본질)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일찍이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사단을 선한 것의 표준으로 내세웁니다. 맹자는 사람이 선한 이유가 측은·수오·사양·시비의 사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사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람은 선한 존재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 뒤 주자는 사단을 리와 기를 가지고 설명하고, 아울러 인간의 또 다른 감정인 희·로·애·구·애·오·욕, 즉 기쁨·분노·슬픔·두려움·사랑·미움·욕심 등 칠정도 리와 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주자는 '사단은 리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리와 기를 가치적으로 말하면, 리는 순수하고 선한 것이고, 기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를 버리고 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실천적 의지를 내포하게 됩니다.

강민우: 갑자기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사단과 칠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혼: 사단과 칠정은 모두 인간의 감정입니다. 보통 정(情)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정에는 선한 도덕적인 정도 있고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는 일반적인 정도 있습니다. 선한 정을

‘사단’이라 하고 선하기도 악하기도 하는 정을 ‘칠정’이라 말합니다. 사단(四端)은 인·의·예·지·가 되는 네 가지 단서 또는 실마리라는 뜻으로서 측은·수오·사양·시비를 가리킵니다. 이때 인·의·예·지는 인간의 본성으로, 맹자가 말한 ‘성선(性善: 성은 선하다)’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사람은 사단이라는 네 가지 실마리를 통해 마음속에 인·의·예·지의 본성이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인·의·예·지가 되는 단서 또는 실마리라고 말합니다.

강민우: 측은(惻隱)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며, 수오(羞惡)는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거나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이며, 사양(辭讓)은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마음이며, 시비(是非)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마음을 통해 인·의·예·지의 성이 우리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음을 알게 되겠군요.

성혼: 그렇습니다. 인·의·예·지의 성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부여받는 인간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 본성 또는 천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사랑(仁),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인 의리(義),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인 사양(禮), 어떤 일에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하는 마음인 지혜(智)를 천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의·예·지의 성은 형이상의 개념이므로 현실 속에 재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이 곧 리를 가리킨다고 하여 성즉리(性卽理)라고 말합니다. 다만 인·의·예·지의 성은 리에 해당하므로 측은·수오·사양·시비라는 사단을 통해 드러날 뿐입니다. 이것을 성리학에서는 성발위정(性發爲情)이라 말합니다. 성이 발하여 정으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강민우: 이렇게 보면, 사단이란 인·의·예·지의 성이 드러난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황은 이때의 사단을 ‘리가 발한 것(理發)’이라고 말한 것이군요. 리는 곧 성을 가리키니, 사단은 결국 성이 드러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혼: 이황은 주자의 설에 따라 ‘사단은 리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는 이기호발설을 주장합니다. 이때 호발(互發)은 서로 발한다는 뜻이니, 사단은 리가 발한 것(理發)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氣發)입니다. 이것을 ‘이기호발설’이라 말합니다. 이기호발설은 이황 사단칠정설의 특징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이발’은 우리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는 인·의·예·지의 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가 드러나는 것이니 그대로 ‘이발’이 됩니다. 또한 리가 발한 사단과 달리, 칠정은 기가 발한 것입니다. 이황이 보기에, 칠정은 악으로 흐르기 쉬운 정입니다. 비록 기쁨·분노·슬픔·즐거움·사랑·미움·욕심 등이 인간의 일반적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자칫하면 절도에서 어긋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노·욕심과 같은 칠정은 그 감정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황은 칠정을 기가 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황은 ‘사단은 리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고 주장합니다.

강민우: 그러나 이황의 설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 26세 연하인 호남의 유학자 기대승(奇大升, 1527~1572)입니다. 이황과 기대승 사이의 논쟁은 1559년부터 1566년까지 8년간 계속되는데, 노학자와 젊은 학자의 치열한 논쟁은 결국 조선 성리설을 발전시키는 큰 계기가 됩니다.

성혼: 두 사람 사이에 논점이 다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사단과 칠정의 개념적 정의를 다르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으로 이해합니다. 사단은 인·의·예·지에 근원하는 선한 정이고, 칠정은 형기에 근원하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정입니다. 이황이 칠정을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악으로 흐르기 쉬운 정으로 이해합니다. 선한 사단과 악으로 흐르기 쉬운 칠정은 분명히 서로 다른 정입니다. 그러나 기대승은 정은 칠정 하나이며, 그 칠정 가운에 선한 부분만을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칠정 밖에 따로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황처럼 사단은 사단이고 칠정은 칠정으로 서로 다른 정이 아니라, 같은 하나의 정입니다.

강민우: 기대승은 이황처럼 사단은 리에 근원하므로 선하고 칠정은 기에 근원하므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선이 있으므로 옳지 않다고 비판했던 것이군요.

성혼: 이황은 사단이 선한 정인 반면, 칠정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기보다는 악으로 흐르기 쉬운 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단은 확충해나가고 악으로 흐르기 쉬운 칠정은 단속하거나 제재해나갈 것을 주장합니다. 결국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모두 수양의 문제에 귀속시킵니다. 수양의 방면에서 볼 때, 칠정은 인간의 일반적 감정으로 그대로 인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가급적 절제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황은 칠정을 '기가 발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의 기는 실제로 발동하는 것과 같은 작용성의 의미보다는 선악의 가치적 의미를 가집니다. 선악의 가치적 의미란 예컨대 리가 선이라면 기는 악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민우: 이들 두 사람 사이에 논점의 차이 중의 또 하나는 리와 기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이황이 리와 기의 관계를 분리시켜 보려는 한다면, 기대승은 리와 기의 관계를 합쳐서 보려고 합니다. 리와 기의 관계를 분리시켜 보는 것을 불상잡(不相雜)이라 말하고, 리와 기의 관계를 합쳐서 보는 것을 불상리(不相離)하고 말합니다. 이황처럼 리와 기의 관계를 분리시켜 보아야 리가 기를 주재할 수 있는 주재성·능동성 등이 확보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리와 기는 어제나 함께 있기 때문에 이이는 리와 기를 분리시켜 보는데 반대하고 합쳐서 볼 것을 주장합니다.

성혼: 리와 기를 분리시켜 보는 이황의 입장에서는 '이발'과 '기발'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와 기를 합쳐서 보는 기대승의 입장에서는 '이발'과 '기발'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황처럼 '사단은 이발이고 칠정은 기발이다'고 하면, 사단에는 리만 있고 기가 없으며 칠정에는 기만 있고 리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전적으로 리와 기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함께 있다는 '불상리'에 따른 이해합니다.

강민우: 기대승은 '사단은 이발이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나, '칠정은 기발이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칠정에는 기와 함께 리가 있으므로 '기발'이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리에 대한 설명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혼: 이러한 기대승의 지적에 따라 이황은 한 걸음 물러나서 "사단은 리가 발하고 기가 따

르는 것이며(理發而氣隨之) 칠정은 기가 발하고 리가 타는 것이다(氣發而理乘之)"라고 내용을 수정합니다. 여기에서 '기가 따른다(氣隨)'와 '리가 탄다(理乘)'는 표현은 기대승의 리와 기가 항상 함께 있다는 '불상리'의 지적을 받아들여 '사단에도 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칠정에도 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는 뜻을 보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리가 주가 되어 발하지만 기가 없는 것이 아니며, 칠정은 기가 주가 되어 발하지만 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황 사단칠정설의 최종안입니다.

강민우: 기대승 역시 이황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견해를 약간 수정합니다. "정이 발할 때에 혹은 리가 움직이고 기가 갖추어지기도 하고 혹은 기가 감응하고 리가 타기도 한다(情之發也, 或理動而氣俱, 或氣感而理乘)"는 것입니다. 이황은 기대승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두 사람의 견해가 좁혀진 것을 기뻐하면서 더 이상 논쟁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이황의 '이발(理發)'과 기대승의 '이동(理動)'은 그 의미가 비슷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성혼: 그러나 후에 기대승은 이황에게 편지를 다시 보내어 "사단은 순수한 선이고 칠정은 선악을 겸한다고 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선이 되니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황은 두 사람의 차이가 다만 "근본은 서로 같고 말단이 서로 다를 뿐이다"라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의견이 상당 부분 좁혀졌지만, 리의 발동과 같은 능동성을 인정하려는 이황의 시각과 '리와 기는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기대승의 시각 차이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누구의 견해가 더 타당한지는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볼 때, 리는 움직이는 실체가 아님에도 이황이 '발한다' 또는 '발동한다'고 주장한 것은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대승이 리가 발하지 않고 움직인다고 말한 것에서도 발(發)과 동(動)의 차이점이 애매합니다. 게다가 작위성이 없는 무위(無爲)한 리가 움직인다고 본 것도 리의 본질과는 다릅니다.

강민우: 그렇다면 두 사람 모두 문제가 있는 거군요.

성혼: 이렇게 논리적으로 두 사람의 견해에 모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논쟁이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논쟁의 바탕에 있는 실천적인 문제의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황에 따르면, 리는 선하고 기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가 발하여 생기는 사단의 선한 가치를 높이고 기가 발하여 생기는 칠정의 불선한 가치를 절제해야 도덕적 기준이 확립됩니다. 반면에 기대승은 사단의 가치나 칠정의 가치를 반대 개념으로 보지 않고 어느 정도 동등하게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부분만을 가리키니, 결국 칠정이 선한 사단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황이 선한 감정을 지키고 불선한 감정을 물리침으로써 마치 종교인에 가까운 도덕적 엄격주의를 선호했다면, 기대승은 인간의 자유분방한 감정을 좀 더 존중하려는 예술가적 감각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민우: 실제로 시인이나 예술가들의 시각에서 볼 때, 칠정을 지나치게 부정적인 정서로 보는 것은 문학이나 예술을 어렵게 만들고 폄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문학과 예술의 주제는 대부분 기쁨·분노·슬픔·두려움·사랑·증오·욕망(희망) 등 사람의 솔직한 본능적 정서를 다루고, 그런 본능적 감정을 반드시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혼: 결국 사단과 칠정의 논변은 모든 사람을 성인과 같은 도덕군자로 만들려는 시각과, 도덕군자는 아닐지라도 평범한 서민의 희·로·애·락의 정서 속에서 아름다움과 선을 찾으려는 시각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황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기대승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리학 논쟁을 민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부질없는 공론이라고 보는 것을 잘못입니다.

성혼과 이이가 사단칠정을 토론하다 1

강민우: 이황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나고 기대승이 세상을 떠난 해에, 성혼과 이이가 다시 사단과 칠정을 가지고 이기논쟁을 벌입니다. 이들 논쟁은 기본적으로 이황과 기대승 사이의 논쟁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성혼: 그것은 제가 이황의 설에서 출발하고 이이는 기대승의 설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리와 기가 서로 섞일 수 없다는 불상잡(不相雜)의 입장에서 이황의 이기호발설을 지지한다면, 이이는 비록 리와 기가 형이상의 원리와 형이하의 사물로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사단칠정과 같은 인간의 심성에서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기대승의 불상리(不相離)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결국 두 선현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 논쟁을 벌인 뜻입니다.

강민우: 성혼선생 역시 처음에는 기대승의 이론을 지지하고 이황의 이론에 회의를 품었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혼선생의 견해가 점차 이황의 이기호발설로 기울어지고, 결국 이이와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면서 성혼선생이 먼저 논쟁을 걸었다죠.

성혼: 제가 질문하고 이이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1592년 한 해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편지가 왕복됩니다. 제가 모두 9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가운데 3·7·8·9번째 편지는 유실되고 이이의 답신만이 전합니다.

강민우: 성혼선생의 성리학을 이해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겠습니다. 유실된 편지는 아마도 임진왜란 때 집이 불타면서 함께 없어지거나 문집을 만들 때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결국 성혼선생의 사단과 칠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것으로는 1·2·4·5·6번째 보낸 편지가 전부이군요.

성혼: 이이와의 사단칠정에 대한 논쟁은 제가 질문하고 이이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분량 면에서도 이이의 대답내용이 몇 곱절이나 많고, 저의 질문내용은 상대적으로 소략합니다.

강민우: 이이와 논변을 전개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혼: 저는 일찍이 이황을 매우 존숭했음에도, 이황의 이기호발설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용(中庸)』의 서문에 나오는 주자의 글을 보고, 즉 주자가 성명에 근원하

는 도심과 형기에서 생겨나는 인심으로 도심과 인심을 둘로 나눈 것을 보고, 이황의 이기호발설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자는 도심과 인심의 차이를 혹원혹생(或原或生)으로 설명합니다. '혹원혹생'은 도심은 혹 성명에 근원하기도 하고 인심은 혹 형기에서 생겨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이이에게 질문하면서 이이와의 논변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민우: 성혼선생도 처음에는 기대승의 이론에 기울어졌으나, 주자의 인심·도심에 대한 해석을 보고 이황의 뜻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군요. 그리하여 이황의 '이기호발설'을 적극 비판하는 이이에게 인심·도심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황의 이기호발설이 타당하다는 것을 질문합니다. 인심·도심에 대한 주자의 해석을 사단·칠정에 적용하면, 기대승의 견해보다는 이황의 견해가 더 타당하기 때문이죠.

성혼: 그렇습니다. 도심·인심을 리에 근원하는 것과 기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상대시켜 볼 수 있다면, 사단·칠정도 같은 논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리에 근원하므로 리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에 근원하므로 기가 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리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으로 보는 이황의 이기호발설은 타당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강민우: 결국 성혼선생은 사단·칠정과 인심·도심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사단·칠정의 내용보다는 인심·도심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황의 이기호발설을 비판하는 이이를 반격했군요.

성혼: 물론 사단·칠정과 인심·도심은 성이 발한 것과 심이 발한 것이라는 명목상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심의 작용을 말한 것입니다. 성리학의 심통성정(心統性情)에 따르면, 심이 성과 정을 총괄하므로 성이 발한 사단·칠정이나 심이 발한 인심·도심은 모두 심의 작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심·도심이 비록 심에서 발한 것이지만 성(性)·정(情)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심에서 발한 인심·도심이든 성에서 발한 사단·칠정이든, 단지 명목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심·도심을 기에 근원하는 것과 리에 근원하는 것으로 상대시켜 볼 수 있으면, 사단·칠정도 리가 발한 것과 기가 발한 것으로 상대시켜 볼 수 있습니다.

강민우: 성혼선생은 주자의 인심·도심의 해석에 근거하여 볼 때, 이이와 달리 이황의 이기호발설이 타당하다는 말씀이군요.

성혼: 주자가 말한 '도심은 리에 근원하고 인심은 기에서 생겨난다'는 것은 이황이 말한 '사단은 리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황의 이기호발설은 타당합니다. 물론 성혼도 이이처럼 사단과 칠정을 모두 '기발' 하나로 보는 것이 간단하고 분명한 장점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이의 '기발이승일도'를 저의 학설로 삼고도 싶지만, 옛 성현들의 말씀을 참고해보면 모두 둘로 나누어 설명하기 때문에 이이의 견해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강민우: 인심과 도심을 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듯이, 사단·칠정도 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성혼선생은 이이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황의 견해는 정당하다'고

강변했다지요.

성혼: 사단과 칠정을 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니, 사단은 리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입니다. 그 이유로써 사단은 인·의·예·지의 성에 근원하고 칠정은 형기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단과 칠정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정이라는 말입니다. 기대승처럼 정은 칠정 하나이므로 칠정의 중절한 것을 사단으로 보는 것과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강민우: 그렇지만 성혼선생이 이황의 이기호발설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황의 견해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혼: 이이의 말처럼, 사단의 근원인 리와 칠정의 근원인 기가 각각 따로 있다가 발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합니다. 이황의 주장처럼 사단의 근원은 리가 되고 칠정의 근원은 기가 된다면, 자칫 리와 기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다가 서로 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칠정으로 발하기 이전의 성은 하나여야 합니다.

강민우: 결국 성혼선생과 이황의 가장 큰 차이는 정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성을 하나로 전제한다는 사실이군요.

성혼: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근원으로서의 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상대시켜 설명합니다. 본연지성은 순수한 성만을 말하며, 기질지성은 기질과 기질 속에 내재된 성을 아울러 말합니다. 실재하는 것은 기질지성 하나이며, 그 가운데 성만을 가리킨 것이 본연지성입니다. 이황처럼 사단의 근원은 본연지성이 되고 칠정의 근원은 기질지성이 된다면, 두 개의 성이 있게 됩니다. 이황의 이러한 견해에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이 발할 때에, 다만 리가 주가 되면 사단이 되고 기가 주가 되면 칠정이 될 뿐입니다.

강민우: 사단은 리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이고 칠정은 기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성혼: 리를 주로 하는 사단과 기를 주로 하는 칠정이라는 두 가지 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인·의·예·지의 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리가 주가 되며, 칠정은 형기에서 감응하여 생긴 것이므로 기가 주가 됩니다. '리가 주가 된다'는 것은 사단에도 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며, '기가 주가 된다'는 것은 칠정에도 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칠정은 성이 이미 발하여 드러난 정이므로 모두 리와 기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황의 이기호발설에 대한 저의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이황처럼 사단의 근원은 본연지성이 되고 칠정의 근원은 기질지성이 된다는 구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민우: 이것은 이이가 이황의 이기호발설을 비판한 내용이기도 하죠.

성혼: 그렇습니다. 만약 이황처럼 사단의 근원이 본연지성이고 칠정의 근원이 기질지성이라면, 아직 발하지 않은 성의 상태에는 두 개의 성이 있게 됩니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는 두 개의 근본이 있게 되니 옳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리(主理)·주기(主氣)의 논리를 제기

합니다. 저는 이황과 달리, 성이 하나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은 하나이고, 다만 이 하나의 성이 막 발하는 시점에 주리·주기의 논리를 적용합니다.

강민우: '주리'는 리를 주로 한다는 뜻이고 '주기'는 기를 주로 한다는 뜻이죠. 이 말에는 이미 리와 기가 함께 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와 기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어야 '리를 주로 한다'거나 '기를 주로 한다'는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혼: 어찌되었든 성이 발하여 드러난 정은 이미 리와 기를 겸합니다. 사단에도 리와 기가 함께 있고 칠정에도 리와 기가 함께 있습니다. 이황처럼, 정으로 발하기 이전의 성에는 사단의 근원인 본연지성과 칠정의 근원인 기질지성이라는 두 개의 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막 발할 즈음'에는 리를 주로 하는 사단과 기를 주로 하는 칠정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강민우: 사단과 칠정의 근원으로서의 성은 하나이고, 다만 하나의 성이 발하여 사단과 칠정으로 드러날 때에 주가 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사단은 리가 주가 되므로 리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주가 되므로 기가 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혼선생이 이해하는 이황 호발설의 뜻인거죠.

성혼: 결국 저도 이황처럼 사단과 칠정을 서로 다른 별개의 정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이이가 정은 칠정 하나이며, 칠정 가운데 선한 부분만을 사단으로 보는 것과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이처럼 성이 하나인 것에는 동의합니다. 이것은 이황이 사단과 칠정의 근원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분하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강민우: 성혼선생의 사단칠정설에는 이황의 견해와 같은 부분도 있고 이이의 견해와 같은 부분도 있군요. 반대로 말하면, 이황의 견해와 다른 부분도 있고 이이의 견해와 다른 부분도 있다는 뜻이겠군요.

성혼: 저는 '이기일발(理氣一發)'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리와 기가 하나로 발한다는 뜻으로, 결국 근원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황처럼 정이 발한 근원으로서의 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든 칠정이든 그 근원은 하나의 성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이의 견해와 일치합니다.

강민우: 그러나 성이 발하여 정이 되는 그 시점, 즉 성혼선생의 표현대로 '막 발할 즈음'에는 주가 되는 것에 따라 사단과 칠정이 구분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리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이고 칠정은 기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이므로 하나의 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이 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황의 견해와 일치하겠군요.

성혼: 사단은 리가 주가 되므로 리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주가 되므로 기가 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한 이황의 이기호발설 내용입니다. 결국 저의 해석은 이황과도 다르고 이이와도 다릅니다. 이황과의 차이는 정의 근원으로서의 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누어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이와의 차이는 리를 주로 하여 말하거나 기를 주로

하여 말함에 따라 '사단은 리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으로 구분해본다는 점입니다.

강민우: 결국 이황처럼 정의 근원으로서의 성을 둘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사단은 리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라는 서로 다른 정으로 이해한다는 말이군요. 이것이 바로 성혼 사단칠정설의 특징이겠습니다. 그래서 성혼선생이 이황과 이이의 학설을 종합하여 절충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요.

성혼: 이이처럼 사단과 칠정을 막론하고 정의 근원으로서의 성은 하나로 보면서도, 동시에 이황처럼 리가 주가 되는 사단과 기가 주가 되는 칠정이라는 서로 다른 두개의 정으로 구분합니다.

강민우: 그래서 이황의 최종 수정안인 '이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 기발이이승지(氣發而理乘之)'에서 '기수지'와 '이승지'의 표현에 대해서는 반대했다죠.

성혼: 저는 이황의 이기호발설에서 사단은 리가 주가 되므로 이발(理發)이고 칠정은 기가 주가 되므로 기발(氣發)임을 인정할 뿐이지, 그 뒤에 나오는 '기가 따른다(氣隨之)'와 '리가 탄다는(理乘之)'는 표현에는 장황하다는 느낌이 들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발과 기발 뒤에 '기수지'와 '이승지'를 덧붙일 경우, 이이의 비판에서처럼 시간상의 선후관계가 설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황이 '기수지'와 '이승지'를 추가한 것은 기대승의 '리와 기는 항상 함께 있다'는 불상리(不相離)의 조건을 수용한데 따른 것입니다. 사단에도 기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리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것'이며, 칠정에도 리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기가 발하고 리가 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황은 이발과 기발에다 '기수지'와 '이승지'를 덧붙인 것입니다.

강민우: 성혼선생은 '기수지'와 '이승지'의 추가 없이 '사단은 리가 발한 것(理發)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氣發)'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본 것이군요. '기수지'와 '이승지'를 더하면 자칫 '리가 발하고 나서 기가 따르거나 기가 발하고 나서 리가 타게 되어' 리와 기 사이에 선후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굳이 '기수지'와 '이승지'를 추가하여 리와 기 사이에 시간적 선후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성혼: 물론 '사단은 리가 주가 되고 칠정은 기가 주가 된다'는 식의 주리와 주기로 나누어 설명하는 저의 주장에 대해 이이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리·주기의 견해는 궁극적으로 리와 기를 둘로 분리시켜 보는 이원론의 한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이는 리와 기는 결코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일원론적 사고를 끝까지 견지합니다. 리는 항상 기에 타고 있으므로 기가 없으면 리는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이다.

강민우: 그래서 이이는 사단과 칠정을 막론하고 리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으므로 '기가 발하고 리가 타는 하나'라는 의미의 기발이승일도(氣發理乘一途)를 주장한 것이죠.

성혼: 사단도 기가 발하고 리가 타는 것이며, 칠정도 기가 발하고 리가 타는 것입니다. 사단

이든 칠정이든 모두 발하는 것은 기이고 다만 리는 기 위에 올라탈 뿐입니다. 그러나 기는 선악을 겸하므로 결국 사단에도 선악이 있고 칠정에도 선악이 있게 됩니다. 이이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사단에도 선악이 있게 되므로 사단을 순선한 감정으로 보는 맹자의 본뜻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이가 직접 '사단에도 선악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기발이승일도'의 논리에 따르면 사단에도 선악이 있게 되므로 순선함을 표방하는 사단의 도덕적 가치가 위태로워집니다.

강민우: 이이의 말처럼 '칠정 속에 사단이 있고, 사단은 칠정의 선한 부분만을 가리킨다'면,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 칠정을 결코 포기할 수 없겠습니다. 이황처럼 칠정은 절제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분방한 감정으로 보았던 것이네요. 성혼선생의 언행이 조심하고 신중한 것과 달리, 이이의 언행이 자유분방하고 활달한 모습을 보인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어 보입니다.

성혼: 이이의 '기발이승일도'는 이황의 '이기호발설'과 매우 다릅니다. 이황의 이기호발설에 따르면, 사단은 리가 발한 것이므로 선하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므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능한 칠정을 절제하고 사단을 확충해야 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황의 학문이 마치 종교인처럼 엄숙하고 감정을 억제하면서 도덕적 수양에 치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민우: 이이는 이황의 이기호발설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는 형이하의 개념으로 실제로 발동이 가능하지만, 리는 형이상의 개념이므로 실제로 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황의 '이발'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리와 기를 이렇게 형이상의 개념과 형이하의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보면, 이이의 견해가 이황의 견해보다 한층 논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혼: 저는 사단과 칠정의 해석에서 이황의 학설을 더 신봉합니다. 이황의 학설이 주자학의 본질에 더 맞다고 보고, 이황을 비판한 이이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논쟁은 30대의 젊은 나이에 벌어졌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신념에 찬 모습으로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논쟁이 길어질수록 이이의 견해도 조금씩 수용하여 절충적인 입장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과 칠정을 막론하고 정의 근원으로서의 성은 하나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리가 주가 되므로 리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주가 되므로 기가 발한 것이다'는 이황의 견해도 수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일발설'과 '주리주기설'입니다. 결국 저의 견해는 이황의 '이기호발설'과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의 중간쯤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민우: 성혼선생은 이이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지 완전히 승복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지만 이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이의 이기설이 매우 독창적이고 탁월하여 자신의 스승이 되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보아 만년에는 이이의 이기설에 상당 부분 동조한 듯합니다.

성혼: 여기에서 이이의 이론을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이에 의하면, 실재하는 정은 칠정

하나이며,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부분만을 말합니다. 이것은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이이는 칠정 속에 사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컨대 칠정 가운데 기쁨·슬픔·사랑·욕구는 인(仁)의 단서가 되고, 분노·미움은 의(義)의 단서가 되며, 두려움은 예(禮)의 단서가 되고, 옳고 그름의 아는 것은 지(智)의 단서가 됩니다. 반대로 사단 가운데도 칠정이 들어있습니다. 예컨대 사단의 측은한 마음(仁)은 칠정의 슬픔에 속하고, 사단의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는 마음(義)은 칠정의 미움에 속하며, 사단의 공경하거나 사양하는 마음(禮)은 칠정의 두려움에 속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智)은 지(知)에 속합니다.

강민우: 이황이 사단은 리가 발한 것이므로 선하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므로 악으로 흐르기 쉬운 것이라는 선과 악의 대립적 개념으로 보는 것과 달리, 이이는 칠정 가운데도 사단이 있고 사단 가운데도 칠정이 있다는 상호 내포적 관계로 이해합니다. 이이의 주장처럼 사단 가운데도 칠정이 있고 칠정 가운데도 사단이 있다면, 사단과 칠정을 무엇 때문에 개념적으로 구분했는지 그 이유가 무색해질 수 있겠군요.

성혼: 그렇습니다. 이이는 사단과 칠정을 하나의 정으로 이해합니다. 하나의 정이므로 사단이 칠정 속에 포함되기도 하고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결국 칠정에도 사단의 의미가 있고 사단에도 칠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주장에 대해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황처럼 사단은 사단이고 칠정은 칠정으로 서로 다른 두개의 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리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이고, 칠정은 기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민우: 그래서 이이는 성혼선생처럼 사단을 도심에, 칠정을 인심에 대비시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 것이죠.

성혼: 저는 사단·칠정의 관계를 인심·도심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단·칠정과 인심·도심을 같은 구조로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심이 성과 정과 총괄한다(心統性情)면, 성이 발한 사단·칠정이나 심이 발한 인심·도심은 모두 우리 마음의 작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사단칠정은 성이 발한 것이고, 인심도심은 심이 발한 것이라는 명목상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강민우: 성에서 발한 사단칠정이든 심에서 발한 인심도심이든 모두 마음의 작용 가운데 이름만 다를 뿐이라는 말씀이군요.

성혼: 도심과 인심의 차이에 대해서도 도심은 사단처럼 선한 것이고 인심은 칠정처럼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주자가 도심은 성명에 근원하는 것(或原)이고 인심은 형기에서 생겨난 것(或生)으로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더 나아가 이황은 성명을 리로 보고 형기를 기로 봄으로써, 도심은 리에서 나온 것이고 인심을 기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주자와 이황은 모두 도심과 인심을 리와 기, 선과 악 등의 대립적 구조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이는 도심과 인심을 모두 같은 성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도심도 성에서 나온 것이고 인심도 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인심과 도심의 근원으로서의 성은 하나이며,

다만 발한 이후에 인심과 도심으로 갈라질 뿐입니다.

강민우: 이이는 사단·칠정과 마찬가지로, 인심과 도심의 관계를 '근원은 하나이나 발한 이후에 둘로 나누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일원이이류(一源而二流)로 말하는데, 하나의 근원이 흘러가서 둘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혼: 또한 이이는 '사단은 도심에 해당하나, 칠정은 정의 전체를 말하므로 도심과 인심을 합친 것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단·칠정과 인심·도심을 같은 구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같은 구조'란 사단과 도심은 모두 리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이고 칠정과 인심은 모두 기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강민우: 이황의 이기호발설이 타당하다는 말씀이군요. 결국 성혼선생께서는 이황의 이기호발설을 인심·도심의 내용을 가지고 논증한 셈이군요.

성혼: 이이는 인심·도심의 관계를 사람이 말에 타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말을 타고 문을 나설 때, 혹 말이 사람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경우도 있고, 혹 사람이 말이 가는대로 맡겨두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사람의 뜻에 따라 나가는 것은 사람이 주가 되므로 도심이고, 사람이 말이 가는 대로 맡겨두고 나가는 것은 말이 주가 되므로 인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타고 문을 나서기 전에는 사람이 주가 될지 말이 주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심과 인심은 처음부터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강민우: 이것은 성혼선생이 주장하는 '이기일발설'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사단이든 칠정이든 성은 하나이며, 이 하나의 성이 막 발할 때에 사단은 리가 주가 되고 칠정은 기가 주가 되는 것처럼, 도심은 사람(리)이 주가 되고 인심은 말(기)이 주가 됩니다. 결국 이이의 인심·도심에 대한 견해는 성혼선생의 사단·칠정에 대한 견해와 비슷해 보입니다. 이것은 이이가 성혼선생과 토론을 거치면서 성혼의 이론을 수용한 것이 아닐까요.

성혼: 꼭 그렇지 않습니다. '리를 주로 한다'거나 '기를 주로 한다'는 주리·주기의 관점은 결국 리와 기를 분리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이는 리와 기를 분리시키는 것에는 결코 반대합니다. 이이에 의하면, 리와 기는 항상 함께 있으므로 도심에도 리와 기가 함께 있고 인심에도 리와 기가 함께 있습니다. 도심에도 기가 있고 인심에도 리가 있으니, 성인이라도 도심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일반 사람이라도 인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인도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고, 추울 때는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인심이 지나치지 않으면, 인심이라도 도심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이의 생각입니다.

성혼과 이이가 사단칠정을 토론하다 2

강민우: 실제로 주리·주기의 관점은 이이의 이론과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성혼: 그렇습니다. 주리·주기는 리와 기가 함께 있는 속에 나아가 분리시켜는 방법입니다. 비록 리와 기가 함께 있음을 전제하지만, 결국 리를 주로 하거나 기를 주로 하는 식으로 분

리시키기 때문에 합쳐서 보려는 이이의 관점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이는 항상 리와 기의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이는 리와 기의 관계를 그릇에 담긴 물에 비유합니다. 물은 리에 해당하고 그릇은 기에 해당합니다. 물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반드시 그릇이 움직여야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릇이 움직이고 나서 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움직이면 동시에 물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리와 기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강민우: 그릇 속의 물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듯이, 리는 결코 스스로 움직이거나 발동할 수 없다는 뜻이군요. 이이는 이러한 리의 특징을 무위(無爲)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리는 실제로 작용성이 없는 형이상의 개념이므로 발동(發)과 같은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이는 이황의 '리가 발한다'는 말이 잘못이라고 비판한 것이군요.

성혼: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에 대해서는 이이의 견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본연지성은 순수한 성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며, 기질지성은 기질과 기질 속에 들어있는 성을 함께 말한 것입니다. 실재하는 성은 기질지성 하나이며, 이 기질지성 속에서 성(리)만을 가리킨 것이 바로 본연지성입니다. 이것은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정은 칠정 하나이며 이때의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듯이, 성은 기질지성 하나이며 이때의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포함합니다.

강민우: 그러나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대립적 관계로 이해하듯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대립적 관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근원은 본연지성이고 칠정의 근원은 기질지성이라 말한 것이군요.

성혼: 사단·칠정과 인심·도심에 대한 저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현실사회에 대한 반영입니다. 예컨대 사화를 일으켜 많은 선비의 목숨을 앗아간 이기(李芑) 같은 악한 인물이 천수를 다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가 작용하여 리가 무너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때도 기가 홀로 작용하고 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이의 말처럼 리와 기는 항상 함께 있으나, 리와 기가 함께 있는 가운데 기가 주가 되기 때문에 이기와 같은 악한 자가 승리합니다.

강민우: 성혼선생이 이이와 수 차례의 편지를 통해서 리와 기, 사단과 칠정, 그리고 인심과 도심의 문제를 토론하지만, 오히려 '사단은 리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거나 '도심은 성명에 근원하는 것이고 인심은 형기에서 생겨난 것이다'는 이황과 주자의 주장을 버리지 못하여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군요.

성혼: 결국 이이는 답답함을 느끼고 다섯 번째 편지에서는 답장 대신 시를 한 수 지어 보내왔습니다. 리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있음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원기(元氣)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元氣何端始
무형이 유형 가운데 있도다	無形在有形
근원을 찾으니 본래 합해 있음을 알겠다	窮源知本合

리와 기는 본래 합쳐진 것이요,	理氣本合也,
처음으로 합쳐진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非有始合之時
리와 기를 둘로 나누려는 자는	欲以理氣二之者
모두 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皆非知道者也. 「理氣詠」

그리고 이이는 시 뒤에 다음과 같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성이란 리와 기가 합한 것입니다. 리가 기 가운데 있는 뒤에 성이 되는 것이니, 만약 형질(기) 가운데 있지 않으면 리라고 해야 하고 성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형질에는 리와 기가 있으며, 그 가운데 리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본연지성입니다. 자사와 맹자는 본연지성을 말하고 정자와 장자(장재)는 기질지성을 말하지만, 그 실상은 하나의 성입니다. 다만 주로 하여 말한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도 주로 하여 말한 뜻을 알지 못하고 성이 둘이라 말하거나 정에 이발과 기발의 구분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찌 리를 알고 성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강민우: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두 개의 성이 아니듯이, 사단과 칠정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이 아니라는 뜻이군요. 성은 기질지성 하나이고 그 가운데 선한 부분만을 가리킨 것이 본연지성이듯이, 정도 칠정 하나이고 그 가운데 선한 부분만을 가리킨 것이 사단인 것이고요.

성혼: 이이의 다섯 번째 편지를 받은 뒤에 비로소 서로의 의견이 하나로 귀착되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이의 ‘기발이승일도’를 어느 선현의 말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이황의 이기호발설을 이이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이의 비판처럼, 이기호발설이 리와 기가 각각 나온다(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리와 기가 동시에 나오지만, 다만 리가 주도할 경우도 있고 기가 주도할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리가 주도할 때는 ‘이발’이 되고, 기가 주도할 때는 ‘기발’이 됩니다.

강민우: 그래서 성혼선생은 이이의 설과 이황의 설을 절충하여 이황과도 다르고 이이와도 다른 ‘이기일발설’을 내세운 것이군요. 이이는 성혼에게 보낸 여섯 번째 편지에서 ‘어떤 말은 나(이이)의 견해와 일치하지만, 어떤 말은 이황의 이론을 끌어오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군요.

성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것은 1572년(선조 5년) 여름 성혼이 38세, 이이가 37세 때 여섯 차례의 왕복 편지를 통해 이루어진 토론의 요지입니다. 이상의 토론 내용을 정리해 보면, 토론이 진행될수록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좁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혼은 이황의 이기호발설에서 출발하지만, 이이의 비판을 받으면서 ‘리와 기가 각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이 하나임을 전제하고, 하나의 성이 발할 때 다만 리가 주도할 때도 있고 기가 주도할 될 때도 있다는 ‘주리주기설’ 또는 ‘이기일발설’로 수정합니다. 이것은 이황의 ‘사단은 리(또는 본연지성)에 근원하므로 이발이고, 칠정은 기(또는 기질지성)에 근원하므로 기발이다’는 주장과는 다릅니다. 또한 이이 역시 처음에는 ‘기발이승일도’를 내세워서 기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리의 가치를 폄하하는 데로 흘렀지만, 성혼의 지적을 받으면서 리가 중하기도 하고 기가 중하기도 하다는 성혼의 주리주기설을 일부 긍정하면서 ‘기발이승일도’를 보완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단·칠정이 아니라 인심·도심의 내용에 반영됩니다. ‘도심은

리가 주가 되고 인심은 기가 주가 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강민우: 성혼과 이이의 논쟁에서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냐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혼: 그렇게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두 사람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이는 우주를 존재론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인간의 심성의 문제를 해석합니다. 반면 성혼은 인간의 윤리적 당위성에서 출발하여 우주의 원리를 역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이의 설명방법은 오늘날의 과학철학에 가깝고, 성혼의 설명방법은 윤리철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방법의 차이는 현실을 살아가는 행동양식에 있어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세계에서 선을 추구하려는 자세와 도덕적 수양을 통해 선을 추구하려는 행동양식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이는 전자에 속하고 성혼은 후자에 속합니다.

강민우: 결국 사단과 칠정이라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선을 실현할 것인가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들 논쟁이 발생된 것이군요. 이이가 현실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이론을 전개한 것이라면, 성혼선생은 도덕의 당위론적 관점에서 이론을 전개한 것이고요.

성혼: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이의 이론이 더 타당하지만, 도덕적 요청이나 필요성에서 보면 저의 이론이 더 타당합니다.

강민우: 지금까지의 설명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혼: 저도 강민우님과 여러 가지 이론을 논의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참고문헌>

한영우, 『우계 성혼 평전』, 민음사, 2016
성기영 글, 이현주 그림, 『만화 우계 성혼』, 우계문화재단, 2019